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FDIC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잉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97호 Wednesday, September 11, 2024 A

트럼프 전 대통령 ‘부정선거’ 초강력 경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부정선거'를 이슈로 끌어올려 짜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 SNS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 상관없이 감옥에 가두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선거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을 색출하고 적용 가능한 법을 모두 동원해 최대한 장기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2020년과 같이 다시 정의가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단순한 선거사범 뿐만 아니라 변호사, 정치공작꾼, 기부자, 불법투표자, 부패한 선관위 관료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더러운 짓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미국에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최대 수준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발각되면 기소-장기 실형” 언급 ‘관심’
“지지층 결집 효과, 경고로 ‘결기’ 드러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2020년 대선 이후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다. 그는 2016년 대선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을 향해 “감방에 보낼 것”이라고 언급한 적은 있었으나 이번에는 선관위 직원과 정치자금 기부자 등으로 그 대상을 넓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공화당이 민주당의 부정선거 도발을 막지 못한다면 더이상 대선 캠페인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고 밝히는 등, 공화당

지지층을 향해서도 결기를 드러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가 민주당의 부정선거 음모를 막아낸다면 나는 더이상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번 대선 이 초박빙으로 진행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한번 ‘부정선거’를 이슈 몰이 해 패배할 경우 또다시 부정선거에 맞선 저항을 촉구할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박세용 기자

빚 못갚을 걱정하는 소비자 늘었다

4년4개월 만에 최고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보면서도 일자리나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는 이전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8월 소비자지대조사(SCE)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향후 1년 물가상승률은 연 3%, 5년 물가상승률은 연 2.8%로 전망했다. 전월과 같은 수준이다.

내년 물가는 휘발유와 주택임대료, 의료비가 크게 오르고 식품품값과 대학 등록금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향후 3개월 동안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3개월 연속 증가해 13.6%였다. 전월 대비 0.3%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높다.

노동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실질 걱정이 줄어든 반면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낮아

졌다.

향후 12개월 이내에 실직할 가능성은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한 13.3%로, 12개월 평균 13.7%보다 낮았다. 자발적으로 이직할 확률도 전월 20.7%에서 8월 19.1%로 떨어졌다.

또한 실적 시 재취업 확률은 0.2% 포인트 하락한 52.3%로 12개월 평균 53.9%보다 낮았다.

가계소득 증가 기대치는 0.1%포인트 상승한 3.1%, 소비 증가 기대치 역시 0.1% 포인트 상승한 5.0%였다.

7월 미국의 총소비자 대출은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용카드 미결제액 같은 리볼빙 부채(revolving debt)와 학자금 대출 등 비리볼빙부채(non-revolving debt) 증가가 원인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은행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 후 미결제액, 자동차 할부금융액 등 일반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총소비자 대출이 전월 대비 255억 달러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5년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김정은 “핵무기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 또 핵 흔들었다

9·9절 행사 불참한 다음날 연설
핵 앞세워 체제 결속 의지 드러내

지난 8일 열린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9절) 76주년 기념행사에 불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당 간부 연설을 통해 “공화국은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체제 기념일인 9·9절에 김정은이 국정 상황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연설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핵 역량’을

앞세운 국방력을 강조, 체제 결속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이 전날 “9월 9일 국경절에 즈음해 당과 정부 지도 간부들을 만나 축하하시고 금후(향후) 국가사업 방향과 관련한 중요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융성 변명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는 제하의 연설에서 김정은은 “우리 군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부단히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의 제1대 과업”이라며 “우리 국가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공화국의 핵전투 무력은 철통 같은 지

휘 통제 체계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백한 결론은 공화국의 핵 역량과 국가 안전권을 보장하는데 임의의 시각에 옮겨 사용할 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돼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김정은이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의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재확인하고, 외부의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핵 지휘 통제 체제’를 갖췄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5년 ‘핵무기’로 이어집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가운데)이 정권 수립 76주년 기념일인 지난 9일 연설을 위해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재입
순금 아가 팔찌, 목걸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한·이 띄우고, 오세훈 반대... 차기셈법 얽힌 '지구당 부활론'

〈한동훈·이재명〉

폐지 이론 ac “돈 정치” 반발
한동훈은 원외우군 확보 노리고
이재명, 팬덤정치 극대화 기대



지구당 부활 논쟁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찬성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반대하는, 보수 대 진보의 대결 일색인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대립 구도가 짜였다.

여의도 정치를 기준으로 보면 지구당 부활은 이미 대세에 가깝다.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9일 국회에서 열린 지구당 활성화 토론회에서도 여야는 한목소리를 냈다.

한 대표는 “지구당이 돈 문제에 약하다지만 시대가 변했고, 법 개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증하겠다”고 했

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구당은 정치를 개혁해 시민이 더 참여하게 하는 새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기를 든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

떤 명분을 붙여도 돈 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퇴보로 유턴하는 게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인가”라고 썼다. 오 시장은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당시 부패 통로로 지목된 지구당을 폐지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했다. 이 법들은 아직 ‘오세훈

법’으로 불린다.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을 차기 대선주자 간 ‘미래 권력 줄다리기로 보는 이도 많다고 한다.

정치권 ‘빅샷’들도 속속 논쟁에 가담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구당 부활이 청년과 신인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구당은 중앙과 지방의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찬성했다. 반면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파다. “부패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만들기”(홍 시장), “거대 양당 정치인만 좋은 일”(조 대표), “지역 토호와 정치 유착 발생 우려”(이 의원) 등의 이유에서다.

찬성파는 ‘빈부 격차’를 부각한다. 지구당은 사라졌어도 현역 의원은 여전히 지역 사무소(일명 연락소)를 통해 지역을 관리하고,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반면, 후원금을 못 받는 원외 인사는 사비로 개인 사무실

을 차리는 것 외에 지역을 관리할 조직이 없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한목소리를 내는 건 당권→대권 직행을 노리는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원내 기반이 약한 한 대표는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원외 조직을 든든한 우군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온라인에서 막강한 친명 팬덤이 지구당을 고리로 오프라인 조직까지 갖추면 파괴력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대 측은 지구당 부활이 ‘지역 유력 인사-정치인-중앙당’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부패 케네시스’를 자극할 것이라고 본다.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경제력 있는 지역 인사들의 입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원외 인사는 “지구당 부활이 청년 정치인을 살린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손국희·김기정 기자

북한 오물풍선, 의도된 화재?... 군 “조잡한 장치 오작동”

공중서 풍선 터뜨리는 타이머
불시착 후 지상서 발열 일으킨 듯



최근 북한이 띄운 오물 풍선으로 인한 화재로 국민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군 당국은 이를 의도된 폭발이라기보다는 장치 오작동으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은 ‘낙하 후 수거’라는 기존 대응 방식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도와 관계없이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도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 공장 화재 현장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과 종이 잔해물로 보이는 물체들이 발견됐다. 8일에도 경기 파주시 광탄면 창고 옥상으로 북한의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불이 났다. 당시 확인된 8729만 3000원의 재산 손해는 현재까지 오물 풍선에 의한 피해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이에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최

지난 8일 북한 오물풍선이 떨어져 불이 났던 경기 파주시 광탄면의 한 창고. [연합뉴스]

군 물량 공세 양상을 보이는 북한 오물 풍선이 이미 현실적 위협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낮밤을 가리지 않고 풍선을 내려보냈다. 해당 기간 띄운 풍선은 1600개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 관계자는 10일 “북한이 쓰레기 풍선의 폭발을 통해 화재를 의도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인화성 물질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넓은 범위에 쓰레기를 퍼뜨리는 게 본래 목적인데, 이에 실패하고 불시착한 풍선이 예기치 않게 화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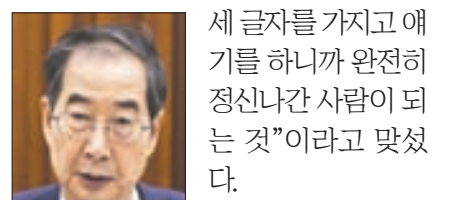
북한 오물 풍선은 풍선과 쓰레기를 담은 비닐,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선과 여기에 부착된 발열 타이머 등으로 구성된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발열 타이머에선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로 비닐을 태워 내용물을 공중에서 흩뿌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풍선에 바람이 빠져 설정된 시간보다 이르게 추락할 때 공중이 아닌 지상에서 발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가을철 건조한 기후 환경에서 자칫 북한 오물 풍선이 대형 산불을 일으킬 우려도 제기된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자연 낙하 후 신속히 수거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며 “경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주장에 한덕수 “분쟁지역화는 열등한 외교”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친일 논란 및 계엄령 선포 준비 의혹 등을 놓고 맞붙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는 실종되고 그 자리는 이념이 채웠다”며 “역사 부정과 뉴라이트, 반국가세력이 그 자리를 채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일본이 공인한 친일파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국가가 위태롭다”며 “파면을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글자를 가지고 애기를 하나 완전히 정신나간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한 총리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지금 독도는 우리가 완전히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독도를 분쟁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건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지난달 16일 KBS 인터뷰에서 한·일 간 과거사 정리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중일마)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한덕수(사진) 국무총리는 “파면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잘랐다. 그러면서 “라이트, 레프트, 뉴라이트, 뉴레프트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념 논쟁을 하고 색깔 칠하고 국민을 가르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일마라는 딱

최근 야당이 제기한 ‘계엄령 선포 준비 의혹’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황당무계한 정치선동이자 극단적 망상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지금 계엄을 얘기하는 건 망상 아닌가”라며 “현재 이 시점에서 계엄이란 건 논쟁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붙을 났다. 성지원 기자

워싱턴 날씨 (°F)

| | | | |
|--------|-------|--------|-------|
| 12일(목) | 82~63 | 15일(일) | 83~63 |
| 13일(금) | 82~63 | 16일(월) | 81~62 |
| 14일(토) | 84~63 | 17일(화) | 79~62 |

9월 11일(수) 84~61

워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사위,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정 \$660,000
재개발/보통/신규 리모델링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 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의사보조사 면허증 호환조약 가입

(PA)

버지니아가 최근 의사보조사(PA, Physician Assistant) 호환 조약에 가입했다.

PA호환 조약에는 현재까지 버지니아를 비롯해 델라웨어, 유타, 위스콘신, 콜로라도, 메인,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등 13개주가 가입했다.

PA는 의사(MD)와 달리 호환조약이 없어도 주에서 진료행위를 할 경우 다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으나 2023년부터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호환 조약이 추진됐다.

PA는 간호사(RN)이나 너스 프랙티셔너(NP)와는 별개의 직업으로, 의사의 감독과 책임 아래 환자에 대한 처방권과 시술 권한이 부여되는 의료 전문 인력이다.

PA는 만성적인 의사 숫자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생겨난 직종이며 특히 1차 진료 분야에서 매우

VA 등 13개주 통용 MD는 법안 부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 분야에 따라서 수술을 보조하거나, 환자의 상담 및 진료, 처방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 PA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PA 양성 대학원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3천 시간의 환자 직접 치료 시간이 있어야만 정식 자격증이 발부된다.

컨설팅 기업 머서의 분석에 의하면, 오는 2028년까지 미국에 부족한 의료 인력은 모두 10만명이 넘는다. PA 직종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편화된 원격진료 시장에 본격 합류할 수 있어, 의사 및 너스 프랙티셔너 등 다른 진료 직종과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주정부 간 이해관계가 상충해 호환조약이 크게 확대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은 호환조약에 가입할 경우 의료인력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PA는 물론 MD와 간호사, 소셜 워커 등의 호환도 불가능하다. 또한 텍사스 등은 의사협회의 막강한 로비에 눌려 PA의 진료 영역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타주 간 면허증 호환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불체자가 경찰 사칭, 10대 소녀 납치강도

페루국적 용의자, 12월 불법입국 법원 출두통지서만 받고 석방돼

남미 출신 불법체류자가 경찰관을 사칭해 10대 소녀를 납치하고 강도 행각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발표에 의하면, 페루 국적의 호세 엔리크 라미레스-카브레라(23세)를 밀입국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지난 2023년 12월19일 애리조나주의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하다가 적발됐으나, 이민법원 출두 명령서만 받고 석방됐다.

버지니아 매나사스 시티 경찰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매나사스의 클로버 힐 로드 선상의 스쿨버스 정류

장에서 경찰관을 사칭하고 한 10대 소녀를 강제로 자신의 지프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

피해자는 피고의 차량을 타고 6-7마일 쯤 가다가 퀴리 로드 선상에서 뛰어내려 도망쳤다. 경찰은 지난 6일 밤 용의자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용의자의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성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당할 수 있기에, 뛰어내리다가 뼈가 부서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고 전했다.

보수와 주민들은 조바이트 행정부가 국경정책에 실패해 불법체류자를 모두 풀어주고 있으며 이들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원로목사회 월례예배 '궁홀히 여기는 자의 복'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회장 김택조 목사) 9월 기도회가 지난 9일, 버지니아 스프링필드 소재 워싱턴목사교회(담임 최시영 목사)에서 열렸다. 최시영 목사는 이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인용해 '궁홀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다음달 원로목사회 예배는 10월8일(화) 오전 11시, 워싱턴예수사랑교회(담임 이성웅 목사)에서 열린다. 김윤미 기자

한전, 미국 송배전 기업과 초고압 전력망 건설 추진

한국전력은 미국 전력·송배전 분야 시공 기업과 미국 내 초고압 전력망 건설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9일 미국 뉴욕 록펠러센터에서 번스앤맥도널과 '765kV(킬로볼트) 송전망 건설 사업 및 연계 신사업 공동 추진 등을 위한 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풍부한 번스앤맥도널 시공 경험과 우수한 한전 기술 역량을 활용해 1970년대 이후 축소됐다가 재개되는 미국 내 765kV 송전망 사업에 공동 협력·진출할 방침이다.

앞으로 양사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미국에서 신규 발주 예정인 765kV 송전망 건설사업 제안서 작성과 계약 협상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은 한국 유일의 전력망 운영사업자로서, 전력망 연구개발(R&D), 건설, 운영 등 전 주기에 걸쳐 핵심역량과 경험을 보유하고



레슬리 듀크 번스앤맥도널 CEO와 김동철 한전 사장(오른쪽)

다"며 "한전이 미국 내 765kV 송전망 건설 사업에 직접 참여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슬리 듀크 번스앤맥도널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송배전 분야 시공 1위 기업인 번스앤맥도널이 한전의 우수한 기술 역량과 결합해 양사 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3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송전망 건설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계란-캔탈롭 살모넬라 감염

버지니아에서 계란과 캔탈롭으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버지니아를 비롯한 9개 주에서 65명이 감염됐으며 이중 26명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고 밝혔다.

연방식품의약품(FDA)은 지난 8월



13일부터 1일 사이 Kandy(번호 4050) 브랜드의 캔탈롭과 Milo's Poultry 혹은 Tony's Fresh Market 브랜드의 계란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당국에서는 이들 제품을 발견할 경우 즉각 폐기하고 환불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살모넬라균은 보통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지만, 익히지 않을 경우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CDC에 의하면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음식을 먹을 경우 6시간 정도가 경과한 후 증상이 나타나며 길게는 열새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심할 경우 화씨 102도가 넘는 고열과 탈수, 복통, 구토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당국에서는 면역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와 5세 이하 어린이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일은 선택 - 오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1석 5조 통합보험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Life Insurance
생명보험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5 in 1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생명보험 (Life Insurance)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주택비즈니스 융자

장기간호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학자금 대출 탕감 또 임시금지 명령

조지아주 연방법원 제동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에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일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미주리·노스다코타·오하이오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 검찰총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6일 조지아주 연방 판사가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공화당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6일 보류 명령을 내린 랜달 홀 판사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가 교육부의 권한 초과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보류 명령이 내려진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세 번째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것으로, 앞서 지난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 규모를 일괄 취소하는 첫 번째 시도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막히자 연방정부는 소득기반 학자금 상환 플랜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를 통해 두 번째 시도를 했다.

하지만 역시 법적 공방이 이어지며 지난 7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이를 일시 중단했다.

세 번째 탕감 시도는 ▷20년 이상 빚을 상환 중인 이들의 대출 잔액을 탕감해주고 ▷소득이 12만 달러 미만(미혼 기준)인 대출자 중 소득 중심 상환 계획에 등록돼 있는 경우이자 잔액을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윤지혜 기자

LA판 글로리 “합의금 줬다” vs “받은 적 없어”

가해자·피해자 상반된 입장 “부모가 돈·사과 전달” 주장에 피해자 “얼굴도 못 봐” 반박 “지금도 진실된 사과 기다려”

토런스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된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 측은 졸업파티 사건 후 사과와 합의금 지급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사과나 합의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미시USA’에 30년 전 토런스 웨스트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약 2주가 지났지만,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5일부터는 가해자 측 지원자들의 주장을 인용한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며 사태는 더욱 복잡해졌다.

8일 올라온 게시글에서 한 누리꾼은 “가해자 중 1명인 김모씨는 ‘학폭의 주동자는 맞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씨의 아버지가 피해자 측과 만나 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가해자 측 지인 A씨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가해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토런스 학교 폭력 사건 게시글. [미시USA 화면 캡처]

들의 부모들이 함께 사과했다고 들었다”며 “현재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잘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가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피해자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가해자 부모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은 적 없으며,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지인 1명이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들의 만남을 주선했으나, 가해자 측에서는 김모씨의 아버지만 참석했다.

피해자는 “한 가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다 결국 쓰러졌다”며 “당시 이를 본 어머니는 어찌할 수가 없으셨다고 했다. 당시 엄마의 삶도 힘들어 ‘같이 참자’는 식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리 오랜 고통 속에 살 거란 건 모르셨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졸업파티 사건 외에도 2년간 구타를 당한 사실을 숨겨왔다고 덧붙였다.

어머니는 딸의 치료를 위해 김씨의 아버지가 준 돈을 받았다고 피해자는 전했다. 눈 상태가 심각해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의사로부터 구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폭행 이후 2주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으며, 머리가 가라앉지 않아 얼굴과 몸을 화장으로 가리고 학교에 갔다고 전했다.

또 그는 “머리를 감을 때 물이 닿기만 해도 머리가 너무 아파 비명을 질렀으며,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어 하루에 6알씩 먹고 24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해자 부모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제대로 된 사과도 받은 적 없다”며 “당시 나와 다른 피해 학생의 상태를 보면, 치료비라 받은 돈을 합의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들도 이제는 성인이니 예전과는 달라졌을 것이라 믿는다”며 “하루빨리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기 기자



9일 오후 OC 트라부코 캐년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 거대한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KTLA5 캡처]

기록적 더위 곳곳서 산불

라인산불 2만여 에이커 태워

일주일째 계속된 폭염으로 남가주 곳곳에 산불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9일 국립기상청(NWS)은 LA 카운티 폭염주의보(Excessive heat warning)를 10일 밤까지 하루 더 연장했다. NWS는 낮 최고기온 100도를 넘는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결과, 남가주 대부분 지역 습도가 8~15%에 그쳐 산불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NWS는 산불예방을 위해 ‘담배꽂초 쓰레기통에 버리기, 캠프라이어 및 불꽃놀이 자제, 야외 불 피우기 자제, 사냥 등 총쏘기 자제, 차량 트레일러 연결 점검’을 당부했다.

9일 오후 2시쯤 랜초샌타 마카리타 북쪽 트라부코 캐년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7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확산하고 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이 지역에 주민대피령을 내렸다. 소방국

이 ‘X’에 공개한 영상에는 이 지역 야산이 불에 타며 인근 지역이 연기로 뒤덮인 모습이 담겼다.

지난주 발생한 ‘라인산불’은 샌버나디노 카운티 산간지역을 위협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가주 소방국은 소방관 2000명, 방위군 80명을 비롯해 소방항공기 C-130 2대, 소방헬기 UH-60 4 등을 진화작업에 투입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산간지역 주민 6000명 이상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주요 도로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

라인산불로 인해 빅베어로 향하는 하이웨이 18번, 리닝스프링으로 향하는 하이웨이 330번, 멘톤 지역 하이웨이 38번 등 통행이 차단됐다. 9일 베어밸리와레드랜드 통합교육구, 유카피아-캘리메사 통합교육구는 산불로 인해 공립학교를 임시휴교했다.

김형재 기자

“분노 일으키는 사진”, 공항 인증샷 뒤통리

공항 검색대 트레이에 소지품을 올려두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Z세대의 새로운 풍속이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CNN은 ‘분노를 일으키는 Z세대의 공항 트레이 사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같은 세대를 조명했다. Z세대가 올리는 검색대 트레이 사진은 비닐봉지와 잡동사니가 흐트러진 생생한 실제 트레이와는 거리가 멀다. 신발, 가방, 여권, 선글라스, 화장품, 책, 태블릿 등을 조화롭게 배치한 뒤 찍는 ‘미학적인’ 사진이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여행을 간다는 것과 가방이나 화장품 등 자신의 소지품을 자연스럽게 과시하는 사진이기도 하다.

CNN은 ‘냉장고 속에서 달걀과 버터 옆에 꽃과 그림을 두고 사진을 찍는 세상’이라면서도 공항 검색대는 이같은 사진을 찍기에 가장 부적절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촌각을 다투면서 항공 안전을 지키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뉴욕 포스트는 “검색대에서 시간을

미학적인 검색 트레이 사진 Z세대서 유행, 해외여행 과시 “시간 지체, 불안 유발” 지적도



Z세대 사이에서 공항 검색대 트레이에 소지품을 올려두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새로운 트렌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지체하는 것은 교통안전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메트로 신문도 “불안을 유발하는 트렌드”라면서 “공항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

인플루언서는 “검색대 외부에서 트레이를 비치해 이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짐을 다시 정리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공항에서 이런 장소에 공간을 내줘야 하냐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다.

CNN은 이처럼 자신의 일상생활을 쉴 새 없이 뽐내는 SNS가 특히 젊은 세대들의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통안전국 대변인은 “이같은 유행을 최근 확인했다. 아직 이로 인한 지연 문제 등이 제기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각자의 소지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항 트레이 인증샷을 비롯해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올린 인증샷이 매일 24시간 SNS 피드에 넘쳐나면서, MZ세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정신 건강에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이혜준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주택 소유자 26% “극한 날씨 대응할 돈 없다”

43% “최근 5년간 조치 안해”
서터·방화재 투자는 9% 불과

전국 곳곳에서 산불과 허리케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택 소유자 4명 중 1명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정보사이트뱅크레이트가 지난 7월 말 전국의 주택 소유자 1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6%가 극한 기상 사태와 관련된 잠재 비용에 재정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남부와 서부가 각각 29%, 28%로 가장 많았으며 북동부 25%, 중서부 19% 순이었다.

응답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주택 소유자의 43%가 지난 2019년 7월 이후 극한 기상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극한 기상에 대비하기 위해 허리케인 서터나 방화재 등에 투자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9%에 불과한 가운데 산불과 허리케인 다발 지역인 서부와 남부 지역 주택소유자의 12%, 10%가 방재 관련 투자를 했다고 밝혀 북동부(6%),



중서부(5%)보다 2배나 많았다.

자연재해와 관련 재정적 대비 정도는 소득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연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주택 소유자의 71%가 대비했다고 밝힌 데 반해 5만 달러 미만인 주택 소유자는 48%에 그쳤다.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답한 비율도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은 5%로 나타났지만 5만 달러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에 달했다.

재산 피해를 보았을 경우 주택보험 공제액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져야 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도 15%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주택 보험료가 인상되

면서 주택 소유자의 7%가 보험이 없는 가운데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 주택 소유자가 15%로 10만 달러 이상(3%)의 5배였다.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해도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39%는 최근 5년간 적절한 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 정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예방조치를 위해 29%는 보험 정책을 변경했는데 여기에는 보험사를 변경(15%)하거나 보상 범위 확대 및 추가 구매(13%), 공제금 낮추기(8%) 등이 포함됐다. 박낙희 기자

“수리비 1억6700만불? 그냥 폭파하자”

22층 빌딩 순식간 와르르



허리케인으로 파손된 루이지애나 주의 한 고층 빌딩이 결국 폭파됐다. 수리비가 1억6700만 달러로 추산되면서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의 22층 빌딩 허츠 타워가 폭파 해체됐다. 소셜미디어(SNS)에 공유된 당시 폭파 영상을 보면, 연쇄적으로 폭발음이 들리더니 건물 전체를 거대한 먼지 구름이 둘러싼 뒤 한 번에 무너져 내렸다.

1983년 지어진 허츠 타워는 총 22층으로, 2008년 허츠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매입했다. 40년간 이 지역 대표적인 마천루로 꼽혔으나 높은 공실률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 때 이 건물에 캐피탈 원뱅크가 입주해 ‘캐피탈 원 타워’로 불리기도 했다.

빌딩은 지난 2020년 허리케인 로

지난 7일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의 22층 빌딩 허츠 타워가 폭파 해체됐다. 사진은 엑스(X) 영상 캡처.

라와 델타 여파로 심각하게 파손됐다. 건물 소유주인 허츠 그룹은 건물 복구 비용으로 약 1억6700만 달러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허츠 그룹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건물은 일부 창문이 깨지고 방수포가 덮인 상태로 약 4년간 방치돼 있었다.

건물 매각에도 나섰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허츠 그룹은 결국 철거를 결정했다. 건물을 폭파해체하는 데 든 비용은 700만 달러에 달한다. 허수영 기자

애플, ‘AI 기능 탑재’ 아이폰16 공개

가격은 799~1199달러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6(사진) 시리즈를 9일 공개했다.

이날 애플은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에 있는 애플파크 스티브 잡스 시어터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 ‘이제 새롭게 빛나다(It's Glowtime)’를 열고 아이폰16 시리즈 등 최신 제품을 선보였다.

아이폰16 시리즈는 6.1인치형 기본 모델과 6.7인치형 플러스, 고급 모델인 6.3인치형 프로와 6.9인치형 프로맥스로 구성됐다.

기본 모델과 플러스 사이즈는 지난해와 같지만, 프로와 프로맥스는 디스플레이가 더 커졌다.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아이폰 기본 모델은 799달러

(128GB), 플러스는 899달러(128GB), 프로는 999달러(128GB), 프로맥스는 1199달러(256GB)부터 시작한다. 이번 아이폰에는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된다.

이용자가 급하게 달려 쓴 메모를 AI가 다듬어 세련된 초대장으로 만들어 주고, 원하는 이모티콘을 생성해주고 독창적인 이미지도 만들어 준다.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Siri)는 업그레이드된 중간에 말이 끊겨도 이용자의 언어를 이해해 답을 제공하고, 이용자 질문에 단계별 방법도 안내해 준다.

이지영 기자

▶ 1면 ‘핵무기’에서 이어집니다

김정은은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진 핵무기는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안 된다”며 “강력한 군사력 보유는 생존 권리”라고도 주장했다. 이는 핵-미사일 고도화는 자위적 수단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9·9절은 통상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제를 선전하는 기념일이다. 이런 날 김정은이 주요 국방·경제 현안에 대한 자체 평가와 과제를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게 통일부의 평가다. 이 때문에 최고인민회의가 헌법 개정 문제 등으로 미뤄지면서 김정은이 9·9절 연설로 이를 대체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북·중 간 이상 기류가 다양한 방면에서 포착되는 가운데 왕야권(王

亞軍) 주목한 중국 대사가 9·9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주북 중국대사관은 이날 10일 공관 웹사이트를 통해 평춘타이(馮春臺) 대사대리가 (북한의) 초청에 응해 주북 중국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을 인솔하고 지난 8일과 9일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6주년 경축집회와 공연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왕 대사는 지난 7월 27일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을 맞아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진행된 ‘6·25전쟁 상징 종대 행진 행사’에도 불참했다. 당시에도 각국 외교 사절이 대부분 참석한 행사에 북한의 혈맹이자 6·25 전쟁 참전국인 중국 대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 1면 ‘인플레이션’에서 이어집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는 것이다.

신용카드 미결제액이 포함되는 리빙빙 부채가 106억 달러 늘어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차량 할부금융액이나 학자금 대출과 같은 비리빙 부채는 148억 달러 급증해 1년여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다.

이런 소비자 대출 증가는 소매 판매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7월 소매 판매는 2023년 초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자동차 할부금융액 중 한 달 이상 연체된 비중은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용카드 신규 연체 비중도 9.05%로 약 1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가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uro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이락조)빌딩
웨일리노래방

40
300m
뉴타운홈

미락조 몰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검색의 제왕’ 구글… 강제 분할 되나

반독점법 위반 소송 패소 따라 법원, 내년 8월 처벌 수위 결정 검색사업 완전 분사 가능성도



북가주 마운티뷰의 구글 베이뷰 건물 전경. [로이터]

‘검색의 제왕’ 구글의 운명이 내년 8월에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반독점법 위반 소송 패소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을 해당 시점까지 결론 내기로 해사다.

각종 인공지능(AI) 검색 스타트업 등 경쟁자가 잇따라 등장하는 가운데, 구글이 검색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7일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미트메흐트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의 인터넷 검색시장 독점 행위에 따른 처벌 결정을 내년 8월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5일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 유지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처벌 방안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메흐트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3~4월에 향후 처벌 수위와 절차 등을 논의하는 심리와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당장 구글 검색사업 부분의 분사도 거론된다. NYT는 “법무부는 구글의 크롬(웹 브라우저)이나 안드로이드(모바일 운영체제)처럼 검색 사업을 완전히 분사하는 방안을 제의하는 데 무게를 두는 중”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와 법원이 판단하는 구글의 처벌 수위에 따라, 향후 기업 매출 실

적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에 광고를 붙이거나,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는 광고 상품 등은 구글의 주요한 매출 창구다. 알파벳(구글의 모회사)의 지난 2분기 매출(847억 달러) 중 57%(485억 달러)가 ‘구글 검색 및 기타’ 부문에서 발생했다.

처벌에 따라 구글의 검색 사업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AI 기술을 앞세운 경쟁자에 검색시장 점유율 일부가 내줄 수 있다. 지난달 구글의 인터넷 검색시장 점유율은 90%(스탯카운터 집계),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퍼플렉시티 등은 AI 검색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 확장을 노리고 있다.

NYT는 “메흐트 판사도 이 같은 경쟁 환경의 변화를 처벌 관련 논의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의 처벌 수위는 다른 빅테크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처벌하는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해부터 애플,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제소했거나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터넷 광고 시장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또 다른 소송을 오는 9일부터 진행한다고 CNBC 등이 7일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구글을 디지털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법원에 제소했다. 디지털 광고를 판매하는 플랫폼(DFP), 광고할 공간을 구매하려는 광고주용 플랫폼(DV360), 그 둘을 잇는 중개 플랫폼(AdX) 등을 구글이 한꺼번에 보유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레베카 알렌워스 밴더빌트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IT전문매체인 ‘더버지’와의 인터뷰에서 “두 번째 소송에서의 승소는 빅테크 독점을 겨냥한 정부에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언 기자

“비트코인, 내년 정점 2년간 내리막 가능성”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2년간 내리막길을 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감기의 영향력이 이유로 지목됐다.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피플은 8일 “비트코인에 반감기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거의 없다”며 “다음 반감기가 2028년인 점을 고려하고 기존 패턴을 이해하면 가격 동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현재 비트코인이 강제 추세에 있고 아직 가격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번 가격 상승기

는 내년 중 피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확한 가격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현재 수준 대비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점쳤다.

다만, 고통스럽고 잔혹한 겨울이 이후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약 두달 만에 반토막이 되는 현상이 출현했다고 소개했다.

매체는 “2026~2027년에 약세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2028년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부상하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보잉 우주선 ‘나홀로’ 지구 귀환

기체 결함에 우주인 못태워

국제우주정거장(ISS) 도달 후 기체 결함으로 유인 시험비행 완수에 실패한 미국 보잉사의 우주캡슐 ‘스타라이너’가 지구에서 발사된 지 약 3개월 만에 ISS를 떠나 지구로 귀환했다.

항공우주국(NASA)의 중계 영상에 따르면 스타라이너는 서부시간으로 6일 오후 3시 4분에 ISS에서 도킹을 해제하고 일련의 연소와 시동 과정을 거쳐 자체 궤도 비행을 시작했다. 스타라이너는 그로부터 약 6시간 후인 오후 9시 1분께 뉴멕시코주 사막의 화이트샌즈 스페이스 허버에 착륙했다.

스타라이너는 지난 6월 5일 첫 유인 시험비행을 위해 NASA 소속 우주비



보잉과 NASA팀이 지난 6일(서부 시간) 뉴멕시코주 화이트 샌즈 스페이스 허버에 착륙한 스타라이너 우주선을 수거하고 있다. [NASA/로이터]

행사 부처 월모어와 수니 윌리엄스를 태우고 지구를 떠났다. 하지만 ISS 도킹 이후 헬륨 누출과 기동 추진기 고장 등 기체 결함이 확인되면서 지구 귀환 일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NASA는 결국 지난달 24일 우주비

행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스타라이너의 ‘무인 귀환’을 결정하고, 우주 비행사들의 귀환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곤’을 활용해 내년 2월 복귀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대선 공약 사업에 아들 투자 논란

암호화폐 육성을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이 관련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집권 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란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다. 단, 이들이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문은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새로운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워싱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업들이 트럼프의 금융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실제로 과거 트럼프 집권기에 외국 고위 인사, 로비스트, 정치단체 인사들이 트럼프가 소유한 호텔에 머물거나 그의 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에도 트럼프의 호감을 사기 위한 것이라 풀이해나왔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7월 27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연례행사인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참석해 “전략적인 국가 비트코인 구축”과 가상화폐 대통령 자문위 설립 등을 약속했다. 또 그는 지난 5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선 “(미국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김상진 기자

JP모건 회장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여전”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10일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고물가 속 경기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기존 우려를 재확인했다.

다이먼 회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브루클린 기관투자자협의회 행사에 참석해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 침체가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이야말로 가장 나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며 “나는 스태그플레이

션 도래 가능성을 아직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다이먼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중 금리인하 개시를 예고한 상황에서 나왔다.

다이먼 회장은 이전부터 미국 경제가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향하고 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표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비롯해 인프라 재정 지출 등이 물가에 상승 압력

을 가하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다이먼 회장은 “이들 요인은 향후 몇 년간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린 이미 (인플레이션) 숲에서 벗어났어”라고 말하긴 어렵다. 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이먼 회장은 한 달 전 인터뷰에서 시장이 미국 경제의 연착륙 성공 가능성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며 지적하며 자신은 연착륙 가능성을 35~40% 정도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진료 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마사지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
한의원 (NCCA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운동화, 물 한통이면 준비 끝. 걷기 좋아하시는 분 형사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장아리엔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은 절로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이스라엘, 사망 미국인에 충격 인정

충격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명

이스라엘군은 지난 6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에서 군 발포에 숨진 미국-튀르키예 이중국적자 아이세누르 에즈기 에이기(26·사진)가 자국군의 충격에 사망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충격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외국인 에이기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결과 그가 간접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총에 맞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 사건은 수십명의 팔레스타인 용의자가 교차로에서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군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격렬한 폭동 중에 발생했다"며 "충격은 에이기가 아니라 폭동의 핵심 선동자를 겨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군 헌병대 범죄조사부(MPCID)가 에이기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



으며, 최종 결론이 나면 군 검찰단(MAG)이 이를 넘겨받아 검토하게 된다. 이스라엘 정부는 군에 부검을 요청했다.

이스라엘군은 "에이기의 죽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에이기는 지난 6일 서안 나블루스 인근 베타 마을에서 이스라엘인 정착촌 확대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그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 분리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국제연대운동(ISM)에서 활동했다.

미국 백악관은 숨진 에이기에 애도를 표하며 이스라엘에 사건 조사를 요청했다. 튀르키예 외무부는 이번 사건을 "이스라엘 정부가 저지른 살인"이라고 비난했다.

이란, 탄도미사일 공급 의혹에 "허위 선전"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악한 선전일 뿐"이라며 부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란이 무기를 일부 국가로 이전한다는 허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식을 퍼뜨리는 것은 추악한 프로파간다(선전)일 뿐"이라고 밝혔다.

칸아니 대변인은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은 가짜지구 대량 학살에 막대한 규모의 불법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은폐하고자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거짓말로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파테 미사일 발사 훈련하는 모습.

책임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이란이 수백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러시아로 선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에도 이란은 주유엔 대표부 성명을 통해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서방은 이를 규탄하며 제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날 칸아니 대변인이 X에 성명을 게시한 직후 백악관은 무인기(드론)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무기 부품과 시스템 이전에 관여한 이란과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은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 지시에 따라 EU 회원국들에 이란에 대한 신규 제재안을 제시했다.

브렌트유, 2년여 만에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 전망에 10일 국제유가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2년여 만에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하락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오전 10시 40분 현재 배럴당 69.48달러로 전장 대비 2.37달러(-3.30%) 급락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1년 12

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글로벌 원유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린 주된 요인이 됐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날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 전망치를 하루 211만 배럴에서 203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다.

"아이엠 유어 파더" 스타워즈 목소리 주인공 제임스 얼 존스 별세

'라이언 킹' 무파사 연기도

할리우드 영화 '스타워즈' 속 명대사 "아이 엠 유어 파더"(I am your father)로 유명한 배우 제임스 얼 존스(사진)가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AP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9일 전했다.

존스는 특히 '스타워즈' 오리진 3부작에서 악당 다스 베이더의 목소리 연기를 맡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 가운데 두 번째 편인 '제국의 역습'(1980)에서 다스 베이더가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와 광선검 결투를 벌이던 중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할리우드 영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전 중 하나로 꼽힌다.

존스는 감정을 극도로 배제한 건조하고 어두운 목소리로 다스 베이더를 연기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존스는 생전 인터뷰에서 다스 베이더의 목소리를 처

음 녹음할 당시 이 영화가 성공할 줄 전혀 몰랐던 터라 보수로 7천달러를 받았고 "그것이 좋은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1994)에서 정글의 왕이자 주인공 '심바'의 아버지인 '무파사'의 목소리를 연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중저음의 목소리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이후 2019년 개봉한 동명의 실사영화에서도 같은 역할을 맡아 연기했다. 또 미국 시청자들에게는 CNN 방송 중 흘러나오는 안내 음성 "디스 이즈 시엔엔"(This is CNN)의 주인공으로도 친숙하다.

1931년 미시시피주 시골 마을의 관작집에서 태어난 존스는 배우를 꿈꾸던 아버지가 일찍이 집을 나간 뒤 6세 때 미시강주의 외조부모 집에 맡겨지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인종차별주의자였던 할머니의 폭언에 시

달리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해 고등학교 때까지 심한 언어장애를 앓았다고 한다. 그러다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의 도움으로 시를 쓰고 낭독하면서 언어장애를 극복했고, 미시간대에 입학해 연극 활동을 하면서 배우의 길에 발을 들였다.

이후 1960년대부터 뉴욕의 작은 연극 무대에 서기 시작해 1970~80년대 브로드웨이와 할리우드, TV를 오가며 수많은 영화·연극·드라마 작품에 출연했다.

1965년에는 TV 드라마 시리즈 '가이딩 라이트' 등에서 의사역을 맡아 당시 미국 주간 연속극에 고정 출연한 최초의 흑인 배우 중 한 명으로 기록됐다.

80대 후반의 나이에도 왕성하게 배우 경력을 이어간 그는 토니상과 골든 글로브, 에미상 시상식에서 연기상을 각각 2차례씩 거머쥐었고, 토니상 평생공로 특별상과 명예 오스카상, 케네디센터 공로상을 받았다. 1992년에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주는 국가 예술 훈장(National Medal of the Arts)을 받기도 했다.



2022년 다리엔 갭을 건너는 이민자들

미국행 이주민이 남긴 오물로 열대우림 신음

남미에서 북미로 향하는 육로 환북관에 놓인 열대우림 지역이 쓰레기와 오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험난한 자연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숨진 이들의 시신까지 그대로 방치되면서 '환경 재앙'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파나마 환경부는 남미 콜롬비아 북부 지역과 맞닿은 남부 국경 지대의 다리엔 갭에서 육로 통과자 1인당 평균 약 9kg 정도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파나마 일간 라프렌사

영국 일간 가디언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추산으로, 작년에는 하루 평균 1천400명 정도가 다리엔 갭을 지나간 것으로 파나마 당국은 확인했다. 하루에 12.6t 이상의 쓰레기가 나온 셈이다. 서울 1인당 하루 폐기물(재활용·음식물 제외, 2020년 기준) 배출량이 약 0.3kg인 것을 고려하면, 이보다 30배 많은 양이다.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외부인이 거

의 드물어 청정함을 유지했던 일대 강둑에는 요즘은 우기만 되면 음료수 캔, 찢어진 티셔츠, 플라스틱 식품 용기로 가득하다고 가디언은 현지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선박용 유류와 배설물까지 겹치면서 악취도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강물을 식수로 쓰거나 물에서 목욕 또는 빨래 등을 하다 질병에 걸린 원주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리엔 갭에는 약 8천명이 사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약 1천400명의 원주

민이 거주하는 누에바비히아 마을 리더는 가디언에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가 넘쳐나기 시작한 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우리는 모든 것을 지역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아메리칸드림'을 이루지 못한 채 험한 환경 속에서 숨진 이주민들의 시신도 곳곳에서 씌어가고 있다고 한다.

호세 라울 몰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지난달 다리엔 갭 출입을 막기 위한 펜스 설치 등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

연의 오야시스였던 다리엔 갭 강물이 배설물과 심지어 시체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초 파나마 공공안전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다리엔 갭을 건넌 이민자는 2019년 2만4천명 규모에서 2022년 25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엔 역대 최고인 5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베네수엘라(32만8천667명)가 압도적으로 많고, 에콰도르(5만7천222명), 아이티(4만6천558명), 중국(2만5천344명)이 그 뒤를 이었다.

Care People Home Health

Care People Home Health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폴스처치, 센터빌, 페어팩스, 뉴포트뉴스, 리치몬드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10/7-10/13 전화 예약 필수!

애난데일 사랑방 이전 (10월)
(로우 코스트, 베스트케어 치과 2층)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 | | | | |
|--|---|--|--|--|
| <p>Centreville (Main Office)</p> <p>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p> | <p>Annandale (사랑방)</p> <p>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p> | <p>Annandale (V)</p> <p>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p> | <p>Richmond</p> <p>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p> | <p>Gaithersburg (MD)</p> <p>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p> |
|--|---|--|--|--|

달방 사는 '울산 중년 혼삶남'... 밥친구 찾아 '번개' 친다

달라진 중년 남성 1인 가구 자녀교육·발령따른 '분산가족' 많아
울산·인천·광주 등 비중 높아
외로움 달래려 교류 모임 활성화
"건강·일상에 소비, 1인 경제 주축"

11년 전 이혼한 뒤 울산광역시 소재 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임형석(48)씨는 매일 퇴근 뒤 지역 '번개 모임'에 나간다. 산업단지가 많은 울산은 4050 혼삶 남성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1인 가구 중 40~59세 혼삶 남성 비율이 38.5%로,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도 활성화돼 있다. 인구 1만 명당 스크린골프장 수도 1.64개(2021년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된 친목 모임도 많다. '울산 4050'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혼자 사는 중장년을 위한 지역 중심의 친목 모임이 여러 개 나온다.

퇴근 뒤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삼삼오오 모여 식사하거나 취미활동을 즐기는 모임이다. 와인·독서·등산·트레킹 등 취미활동 분야도 다양하다. 임형석씨도 한 달에 두 번씩 주말마다 부산으로 가 동래학춤과 타악기 연주 등을 한다. 그는 매년 10회 이상 정기 공연도 한다. 임씨는 "공연할 때마다 의상과 악기·소품 등에 50만원가량을 쓴다"며 "나를 위한 투자라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3년 전 서울에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울산에 내려온 한 공공기관

팀장 손모(53)씨도 "퇴근 뒤 남자들끼리 할 게 없으니 골프·수영·등산 등 취미를 같이하곤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40~59세 혼삶 남성의 비율은 울산(38.5%), 인천(37.1%), 광주(35.7%) 순으로 높았다. 광역 도를 포함하면 울산은 제주(42.3%)에 이어 두 번째(38.5%)였고 경남(37.9%), 인천(37.1%), 전남(36.5%) 등이 뒤를 이었다.

울산뿐 아니라 인천·광주 등 4050 혼삶 남성이 많은 지역에서 회사와 동네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퇴근 후 혼밥 방지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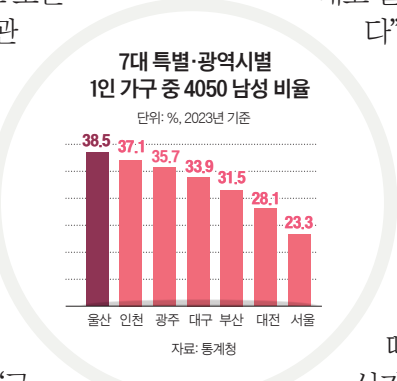
'고기 같이 먹기' 같은 단체 채팅방도 많다. 하지만 새로운 네트워크가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도 많다. 특히 연고 없는 타지에서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다.

40~50대 남성 1인 가구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기러기·이혼·발령'이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4050 남성 1인 가구 중 혼자 사는 이유를 '직장 또는 학업'으로 꼽은 40대와 50대는 각각 32.2%, 12.2%였고 이혼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0대 12.9%, 50대 30%였다.

지방 발령을 받았거나 자녀 교육 때문에 가족을 수도권으로 보낸 경우도 많았다. 선박 관련 기업에 다니는 윤모(47)씨는 "재직 중 한 번은 지방 근무를 해야 하는데 초등학교·유치원생 자녀를 데리고 지방으로 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혼자 내려왔다"며 "금

요일 오후에 서울에 올라가 주말을 보내고 일요일 저녁에 내려온다"고 말했다.

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중년 남성이 혼자 사는 건 가정이 해체된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때문에 따로 사는 '분산가족' 형태가 많아졌다"며 "경제활동이 활발한 중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4050 혼삶 여성

- 혼삶 이유 ● 직업 ● 고민 및 의견

남편 사별 뒤 자녀 독립

대형마트 계산원 (월급 200만원 안팎)

"자녀 결혼자금, 노후 대비 등 걱정돼"

김모씨 (55세)

비혼으로 반려견과 생활

건설회사 현장직 (월급 300만원 안팎)

"결핍된 인생이라는 차별적 인식 개선돼야"

신모씨 (53세)

자녀 없는 상황에서 이혼

"65세 미만에도 강연 등 복지 적용 필요"

심씨 (1년 차)

곽모씨 (54세)

남편 지방 발령 뒤 자녀 독립

유직 중

"여성 혼자 살다 보니 안전 걱정 커"

우모씨 (48세)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비정상적 삶 손가락질 답답"

중년 1인 가구의 고민
여성들 편견·경제력·치안 걱정 커
복지혜택·청약 등 소외엔 아쉬움
"일자리·현금 지원 등 장치 필요"

"남편과 아이가 없다고 비정상적 삶이라고 인식되는 게 답답하죠. 요즘이야 젊은 친구들이 비혼이라고 하면 당차 보이지만 우리 젊은 댁 그렇지 않았어요. 주택 청약부터 세금 감면까지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고요."

충북 제천의 한 건설회사 현장직으로 일하는 신모(53)씨는 1인 가구 여성으로서 사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비혼주의인 신씨는 반려견과 10년째 살고 있다. 그는 "1인 가구 중 선입견과 경

제력·안전에 가장 취약한 게 40~50대 여성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050 여성 1인 가구 수는 2015년 70만7604명에서 지난해 85만4130명으로 증가했다. 주요 이유는 이혼과 사별, 비혼, 본인 또는 배우자의 회사 발령 등이다. 중앙일보가 각기 다른 이유로 혼자 살고 있는 4050 여성 네 명과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사회 편견과 선입견 >경제력 >사회 안전망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론했다.

4050 혼삶 여성은 결혼·출산을 당연시하던 1990~2000년대에 청년기를 보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초혼연령은 1990년 24.8세, 2000년 26.5세였다. 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2명, 90년 1.57명, 2000년 1.48명이었

다. 이 때문에 현재 4050 여성 1인 가구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구성원에서 벗어났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다.

또 다른 어려움은 경제적 취약성이다. 다른 연령·성별 그룹보다 고소득자가 적고 경력단절 경험자가 많기 때문이다. 남편과 사별한 뒤 두 자녀의 결혼·취업으로 혼자 사는 김모(55)씨는 한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다. 200만원 안팎의 월급으로 혼자 생활하는 데엔 큰 어려움은 없지만 "노후에 큰 병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혼 뒤 혼삶을 사는 곽모(54)씨는 생활용품점에서 일하다가 고관절 부상으로 그만둔 뒤 1년째 쉬는 중이다. 그는 "65세 이하여서 노인에게 적용되는 복지 혜택은 못 받고, 새로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운 나이"라고

말했다.

4050 혼삶 여성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분야는 방범과 치안이였다. 배우자가 지방으로 발령 났지만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주말부부를 선택한 우모(48)씨는 "여자 혼자 살다 보니 안전 문제에서 불안하고 무서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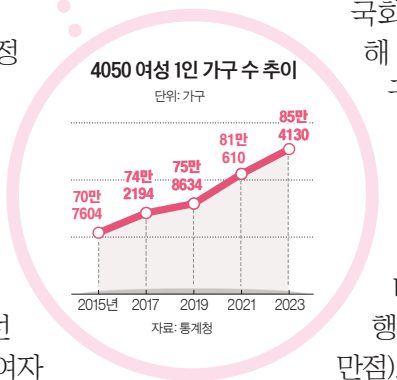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 안심 귀갓길 폐쇄회로(CC)TV나 안심벨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공급 주체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적 고립 등 정서적 문제는 성별에 관계없이 혼삶 4050들이 맞닥뜨린 과제로 꼽힌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만 15세 이상 1인 가구 1428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중년 이혼 남성'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중년 이혼 남성은 행복도가 5.43점(10점 만점)으로 '사별한 노년 남성'(5.57점)보다 낮았다. 이어 '중년 이혼 여성'(5.93점)과 '기러기형 중년층'(6.15점)이 각각 5위, 4위였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1인 가구 지원 정책에서도 중년이 소외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곡선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중년은 노년이나 청년보다 일자리 지원이나 현금 지원, 커뮤니티 형성에 있어 사회적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신혜연·김서원 기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 매매 / 렌트 | 금액 | 설명 |
|------------------------------------|-----------|--|
| McLean, VA | \$900,000 | 현재 3년 (\$4,20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
| 8003 Fallstaff Rd., McLean | RENTED | |
| 1645 International Dr., McLean | RENTED | 릴리안 콘도, 방 2 화 2, 콘도 유닛, 아주 밝음, 경치 좋음 |
|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 \$2,800 | One Park Crest 콘도 |
| 델리샵 (DC) | \$150K |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
| 세탁소 (MD) | \$300K |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

주소

- ★ 1811 Fallbrook Ln, Vienna, VA
- ★ 1002 Abbey Way, McLean, VA
- ★ 223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 ★ 7132 Old Dominion Dr, McLean, VA
- ★ 1789 Dawson St, Vienna, VA
- ★ 2702 Scotch Haven Dr, Vienna, VA
- ★ 74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 ★ 1240 Kensington Rd, McLean, VA
- ★ 7651 Tremayne Pl, McLean, VA
- ★ 4111 11th St, Arlington, VA
- ★ 16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 ★ 2969 Oakborough Sq, Oakton, VA
- ★ 10222 Baltusrol Ct, Oakton, VA
- ★ 1536 Northern Neck Dr, Vienna, VA
- ★ 14263 Travilah Rd, Rockville, MD

기간

세입자

- 2년 주재원
- 3년 교민
- 2년 교민
- 2+1년 국제기구
- 2년 교민
- 2년 주재원
- 3년 주재원
- 1년 주재원
- 1+1년
- 2년 주재원
- 3년 국제기구
- 18개월 주재원
- 3년 주재원
- 2년 주재원
- 2년 교민

*그 외 30여채 더 있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홈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적,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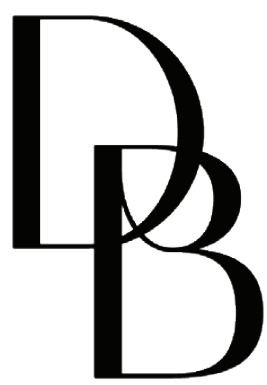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종언·이재현
이중언·이재현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703-259-5617, 410-241-2520

패어팩스티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DONNA BELLA

LASER MEDSPA®
WWW.DONNABELLALASER.COM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젊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FDA 승인을 받은 최첨단 의료 장비로 당신의 10년을 돌려 드립니다.



머리→헤어 복원
Laser Hair Restoration

얼굴→피부 레이저 치료 & 기미 제거
Fractional CO2 Laser, Laser Melasma Treatment

질→질 회춘술
Non Surgical Laser Vaginal Rejuvenation
질 건조증
Vaginal Dryness
요실금
Urinary Incontinence

눈썹→눈썹 문신 제거
Eyebrow Tattoo Laser Removal

쥐젖 / 피부점 / 사마귀
Skin Tag / Skin Mole / Wart

복부→바디 콘투어링 & 체중 감량 프로그램
Laser Body Contouring & Weight Loss Program

다리 & 겨드랑이→레이저 헤어 제모
Laser Hair Removal

다리→노출 혈관 제거
Non Surgical Laser Vascular Treatments

발→발톱 무좀 치료
Laser Toenail Fungus Treatment

Open Special H. Carbon Toning
~~\$350~~ → **\$99**

- REDUCING THE SIGNS OF PREMATURE AGING
- ERASING OR FADING YELLOW/BROWN PIGMENTATION
- SHRINKING SCARS (MUST BE YOUNG SCARS) OF A SMALL DIAMETER
- REDUCING FINE LINES AND WRINKLES
- IMPROVING SKIN INTEGRITY AND RADIANCE
- STIMULATING COLLAGEN GROWTH FOR FIRMER, PLUMPER SKIN
- REDUCING OILY SKIN OR EXFOLIATING DRY SKIN



Dr. 황지연
Jiyon Hwang-Ki, MD
BOARD CERTIFIED,
DIPLOMATE OF THE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MD 락빌
T. 301.417.4975
15200 Shady Grove Rd. Suite 108
Rockville, MD 20850
Mon ~ Fri: 8:00am ~ 4:30pm
*Saturday by Appointment

VA 애쉬번
T. 703.443.4713
21785 Filigree Ct. Suite 206
Ashburn, VA 20147
Mon ~ Fri: 9:30am ~ 6:00pm
*Saturday by Appointment

VA 페어팩스
OPENING JULY 2024
13135 Lee Jackson Hwy. Suite 205
Chantilly, VA 22033
***직원 모집: Esthetician, Receptionist, Manager 그리고 NP or PA**

“전공의들, 정부 못 믿어 떠났다... 겁박한다고 복귀 안 해”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원하는 날 진료 못 봐 대기한 비율은 0.9%, 외래 접수 후 진료까지 기다린 시간은 평균 17.9분. (수술 등을 위한) 입원 환자 절반(48.1%)은 예약 없이 당일 입원, 열에 하나(10.6%)만 원하는 날 입원 못 해 평균 13.6일 기다림. 진료·치료 만족도는 94.7%.’

의사들 주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다.

장기이식 등 생명에 직결된 주요 수술마저 기약 없이 미뤄지고, 하루가 멀다고 전국 응급실 축소 운영 소식이 들려오는 ‘의료대란’ 와중이라 언제 이런 의료서비스를 누렸는지 아득하지만, 한국은 원래 이런 나라였다. 의사들(전공의 포함)이 1인당 연 6113회(OECD 평균 1788회) 진료하며 지탱해온 의료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 후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전공의들이 “미래가 없다”며 병원을 떠난 후 모든 게 달라졌다. 지방 대학병원들부터 경영난으로 문 닫을 위기라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전공의 없이 버텨온 필수 의료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 등으로 서울·수도권 주요 응급실까지 속속 축소 운용에 들어가고 있다.

불과 6개월 만에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에 내몰린 지금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범무법인 하정의 강명훈·최재형(68) 두 변호사를 만난 이유다. 지난 6월 이들이 전공의 3명을 대리해 대한민국 정부와 수련병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인터뷰했다. 그랜 일방적인 ‘정부 지지, 전공의 비난’ 여론이었는데,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이자 지난 4월까지 집권당 의원이었던 최 변호사(전 감사원장)가 그가 “학창시절 엮고 등교했다”는 미담 속 절친 강 변호사와 함께 정부와 대립하는 전공의 편에 선 이유가 궁금했다. 상황이 급변한 만큼 지난 3일 추가 인터뷰를 했다. 그새 대리하는 전공의 수가 1000명을 훌쩍 넘었다. 두 변호사 시점으로 정리했다.

강명훈 “미래를 선택할 자유”
자유와 선택. 내 인생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다. 소아마비 탓에 아무 데도 못 다녔을 거라고 짐작하겠지만 아니다. 경기도·서울법대·사법연수원(13기)을 함께 다닌 재형이(최재형)만이 아니라 힘 좋은 교회 친구들이 나를 많이 엮고

다녔다. 우리 사회는 장애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는지 몰라도, 난 차별은커녕 친구들 등에 업혀 캠프 가고 설악산 마등령이랑 오대산도 넘었다. 장애라는 한계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니, 내 장애가 내 삶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

변호사를 택할 때도 그랬다. 원래 꿈은 의사였다. 그런데 아는 의사들이 “수련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기에 고3 때 이과에서 문과로 바뀌 법대에 갔다. 강요가 아니라 내 결정이라 아쉽지 않았다.

연수원 시절에도 비슷한 선택을 했다. 나보다 연수원 한 기수 위(12기) 중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4명 전원이 법관 임용에 탈락한 적이 있다. 지팡이 짚고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도 법원행정처는 “법관 활동성이 높고 있어 지체 부자유한 사람은 업무가 어렵다”고 했다. 언론이 연일 대서특필한 덕분에 이듬해 전원 판사 발령을 받았다. 이리니 연수원에서 아예 못 걷는 내 존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연수원장이 미리 “관·검사 지원을 안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결혼 전이라 혼자 지방 근무하는 게 어려울 거 같아 “변호사 하자”고 마음먹었다. 이번에도 내가 정했기에 미련은 없었다.

그렇게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왔다. 직접 차 운전해서 어디든 다니는 나더러 우리 애(31)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장애인이나”는 농담을 한다. 하지만 불나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으니 휠체어 탄 나는 3~4층에만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어찌됐나. 어차피 안 되는 건 그냥 받아들인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넌 장애 있으니 의대 못 가, 판사 못 해”라고 명령했다면 어땠을까. 혹은 화재 대피가 곤란하니 건물 3층 위로 아예 못 올라가게 막는다면 어떨까.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 하곤 반발했을 거다. 국가의 역할은 개 개인의 삶에 “이래저래라” 간섭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 자율적으로 살다 서로 부딪히는 지점을 조화롭게 푸는 거라 믿는다. 현장 모르는 무리한 정부 정책 앞에 “미래가 없다”며 병원을 떠났으나 사직의 자유마저 억압당한 전공의 편에 선 이유다.

최재형 “법보다 정치”
의원 시절 복지위에서 의료 문제를 꽤 다뤘다. 지난해 11월 ‘의료사고 책임감 면과 필수 의료 확대’ 세미나에선 ‘국내



신뢰 과탄 정부 정책 판결 남기려 전공의 1000명, 정부 상대 손해배상 “개혁 명분 의료 시스템 붕괴에 분노” 신뢰 복구할 정치적 해결이 우선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당한 건수(연평균 754.3건)는 영국의 580.6배로, 젊은 의사들이 응급의학 등 필수 의료로 외면하는 이유”라는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앞서 지난해 2월엔 복지위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 지원이 줄어드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로드맵을 발표해 전공의 지원을 유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당시 “불가능한 점을 쉽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무려 1년 반 뒤 의료대란이 불거지고서야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그때도 참 답답했지만, 돌아켜보면 더 안타깝다.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나 수가 조정은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에 앞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고,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이를 건너뛰고 증원만 앞세우는 바람에 작금의 응급실 대란 등 국민 건강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이 너무 거칠다. 의료계에 구체적이고 신뢰받을 만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밥그릇 지키기’ 프레임으로 의사 집단을 악마화해, 의사들 자존심을 완전히 못갸다.

윤 대통령의 증원 발표 당시 여당의원이었는데도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 6월 전공의 소송 당시, 정부는 ‘면허 취소’ 카드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접었지만 여전히 전공의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전공의들의 다른 병원 전직이나 입대,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막으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그때만 해도 빅5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초진 환자가 줄고 수술이 조금 지연됐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슨 큰 의료 위기가 벌어진 양 의료법 59조 1항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내세워 전공의들을 압박했다.

내 눈에 행정부의 권력 남용으로밖에 안 보였다. 직전까지 여당 의원이었기에 ‘정부 명령이 위법하다’는 전제로 소송에 합류하는 게 부담이었지만, 법원 판단을 빨리 받아 국민 건강이나 의료 시스템을 위해 의정 갈등을 풀고 싶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해결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특히 그렇다. “잘못한 게 없다”며 정부 권위로 억누르려 하지 말고 정치적 해결을 도모해야 문제가 풀린다.

강명훈과 최재형 “전공의에 자유를”
전공의 소송은 표면상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지만, 돈이 초점은 아니다. 전공의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로막는

법적 제약 해소에 있다. 우리 범무법인에서만 1000명 넘는 전공의가 참여한 건 수임료가 20만원(최초 3명 무료)으로 산 이유뿐만이 아니라 대정부 투쟁 차원도 있다. 정부 잘못을 판결문으로 남기고 싶다는 희망이 깔려있다는 얘기다.

대다수 국민은 주 52시간 근무 권리를 누린다. 그런데 주 80시간, 연속 36시간 근무를 견뎌온 전공의들에겐 왜 ‘힘들면 그만둘 자유’ (필수 의료라는) 직업에 미래가 없어 그만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자기 돈 들여 공부해 의사가 된 전공의들은 국가와 사회,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으로 무한 희생을 강요받는 걸 수긍하지 못한다.

물론 정부는 무기가 있다. “의사는 어떤 경우든 환자를 떠나선 안 된다”는 윤리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이 정말 ‘중대한’ 위해를 불러오는 사안인지 따져봐야 한다. 전공의는 특정 과목 전문성을 쌓기 위해 의사 면허 취득 후 개개인 선택하는 과정이지 필수가 아니다. 수련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 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아예 관두고 싶으면 관둘 수 있어야 한다. 가령 대학교 수험생 대학원생 조교가 있으면 교수나 학교 모두 여러모로 편하지만, 전국 모든 대학 조교가 동시에 다 그만둔다 해도 대학 시스템이 무너지는 위기가 발생하진 않는다.

한덕수 총리 등 정부 관료들은 연일 의료대란 책임을 전공의들에 전가한다. 하지만 전공의가 그만두면 당장 문제가 벌어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해온 건 정부다. 또 전공의 장기 부재가 불러온 의료대란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도 아무 대비 없이 전공의들이 불신하는 정책을 강행해 이탈을 불러온 책임은 정부에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를 비롯해 전문지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이들에 대한 존중과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일하며 돈 벌고 명예까지 얻는다면 만족감이 높아져 더 열심히 일하는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걸맞다. 윤 정부는 그걸 앞장서서 무너뜨렸다.

적잖은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을 원상 복구해도 안 돌아간다”고 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고하게 박혀버린 탓이다. 이걸 먼저 풀어야 한다.



서울대 법대 시절 캠핑간 최재형 변호사(맨 위)와 강명훈 변호사(맨 아래). [중앙포토]



대선 경선 때 절친인 강명훈 변호사(왼쪽)가 최재형 예비 후보 후 원회장을 했다. [중앙포토]



지난달 21일 경찰에 출석한 박 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GTAX Consulting Group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최고의 시설 (1인/1실)
- INOVA 병원 5분 거리
- 한국 TV 시청 가능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문의 703-980-9890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윤 대통령 “추석 응급의 진찰료 3.5배… 25일까지 비상주간”

(권역응급센터)

민간 당직 병원 4000곳 운영 계획
“당직 참여 ac, 간호사에 감사”
한덕수, 내일 응급의료 대국민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 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뒤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상시 운영하며, 민간 병원 중심의 당직 병의원 4000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면서도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 일각의 악의적 행동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응급실 근무 의료진의 실명을 ‘응급실 부역’이란 이름을 달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태의 웹사이트인 ‘감사한 의사 명단’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기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엔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등 응급의료 대국민 설명도 진행된다.

◆“자유민주체 무너뜨릴 자유 없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서울 그랜드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해외지역 회의(미주) 격려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라며 “자유와 번영을 하루라도 빨리 북녘 땅으로 확장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아직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가치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일각에는 (북한의)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러한 세력에 맞서 우리가 뚝뚝 물쳐야 하고, 하나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박단 “임현택 의협회장 조속 사퇴를”

(전공의 비대위장)

의료계 균열, 협의체 구성 어려워져

박 “의협, 전공의·의대생 대표 안해”

의료계 참여 부진에 불협화음 겹쳐

전공의·의대생 대표가 임현택 대한 의사협회(의협)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참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내부 불협화음 변수까지 더해지며 협의체 구성이 더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이 의료계 대표로서 협의체에 나서는 걸 거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위원장은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면서 “임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전공의·의대생 언급을 삼가길 바라며, 임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입장이 본인과 손준호·김서영·조주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명의임을 내세웠다.

박 위원장이 임 회장 사퇴를 요구한 건 처음은 아니다. 7월 말에도 “임

회장이 공식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언급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며 자진 사퇴를 권했다. 6월에도 임 회장을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 두 사람이 이미 수차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내부 균열’을 또 한번 노출한 셈이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7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전공의 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가 빠르게 꾸러질 가능성도 작아졌다. 의료계에선 의협 등 의사단체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주장해 온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이뤄져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입장이 삐걱거리면서 어느 한쪽이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일대오’ 형성부터 어려워진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의대생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게 임 회장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전공의 측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이들과 계속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의대 교수는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으면 협의체가 구성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이재명 “평산책방 폭력행태 규탄…적대정치 종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끔찍한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갈수록 과격해지는 폭력 행태를 보며 정치의 역할을 돌아본다. 소통하고 통합하는 정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썼다.

이어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균열과 갈등을 먹고 사는 ‘적대정치’로 변질됐다”며 “상대를 제거하고 국민을 편가르는 정치만 남으니 국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대정치를 종식하고 정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의 본질을 복원해야 한다”며 “통합의 정치, 상생하는 사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시대가 정치에 부여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한 ‘통합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에도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문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하자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며 집회 취소를 당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나란히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사이의 결속을 강화해 당내 분열을 차단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평산책방 여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평산책방 이사회는 피해자가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몽블랑서 조난한 한국인 2명, 사흘만에 시신으로 발견

프랑스에서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몽블랑(4807m)을 오르다 조난한 한국인 2명이 연락이 끊긴 지 사흘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10일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프랑스 구조 당국은 이날 오후 1시15분쯤 몽블랑 정상에서 100m 떨어진 경사면에서 한국인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사망자는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으로, 이들이 발견된 지점은 지난 7일 대사관 측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프랑

스 당국에 알려진 조난 위치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등반 도중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당국은 시신을 인근 장례업체에 인계한 뒤 이들의 일행을 통해 신원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한국 대사관은 사망자들의 유족에게 시신 수습 사실을 알렸고 추후 필요한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망자들은 소속된 산악회 회원 5명과 사모니-몽블랑 지역을 찾았다가 사

고를 당했다. 총 7명 중 4명만 7일 등반에 나섰고, 산을 오르지 않은 나머지 3명은 등반자들이 조난 당했다고 보고 당일 현지 영사협력관에 신고했다.

사망자 외 등반자 2명은 기상 악화로 하산하지 못했다가 이튿날인 8일 고도 4100m 지점에서 산악 헬기에 의해 구조됐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들과 함께 실종됐던 이탈리아 산악인 2명 역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지혜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헬렌 서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복바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길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 페어팩스 싱글홈 | 페어팩스 타운홈 | 센터빌 타운홈 |
|---|--|--|--|
| | | | |
| \$1,250,000 | \$750,000 | \$699,000 | \$569,000 |
| **방4/화3.5/차고2. Many Upgraded. ** 주인이 잘 관리한 집. | **방4/화3. Ranch 스타일. 0.2 Ac. ** 굿로케이션, 조용한동네. Move-in Ready | **방3. 화2.55/차고2 ** Many Upgraded (지붕. HVAC. 워터히터. Bathrooms) | **방4/화3.5/2 Assigned. 세지붕. ** 지하 Full Bath. Walkout 업그레이드 Bath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약대생에 직장인까지 증원의대 지원 몰렸다

수시접수 이틀만에 정원의 4배 증원 원점논의 주장이 지원 불붙여 정원 늘어 1.4~1.5등급도 합격권 “작년 5.7만 지원, 올해 8만 예상”

“고3 학생 중에 의대 원서를 쓰겠다는 학생들이 늘었다. 보통 전교 5등까지 의대를 노렸다면, 올해는 10등까지 지원서를 낼 계획이다.”

10일 부산의 한 일반고 교감은 올해 의대 입시 경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교감은 “우리 학교에 수능 원서를 접수시키러 온 재학생도 매년 80명 선에서 올해 98명으로 확 늘었다”며 “다수의 메디컬 계열(치의·한의·약학·수의대)이나 상위권 대학 자연·이공계열 재학생이 의대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빈자리를 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증원을 앞둔 의과대학의 입학 경쟁률이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최대 수십 대 1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도 이날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2025학년도 증원 유예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과 별

개로 예고된 대입 절차는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38곳은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10일 오후 6시까지 38개교는 모집인원 3047명 대비 1만3339건의 지원을 받아 4.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원서 접수 이틀 만에 모집인원의 4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린 것이다.

이날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올해 신설된 가천대 의대 논술전형은 40명 모집에 1516명이 지원해 3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660대 1로 전국 모든 전형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인하대 의예과 논술우수자 전형도 12명 모집 정원에 384명이 지원해 벌써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톨릭대 의예과 논술 전형은 19명 정원에 711명이 몰렸다. 논술 전형은 내신 등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 매년 경쟁률이 수십, 수백 대 1 정도로 높은 편이다.

학생부 전형도 순항 중이다.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일반)은 49명 모집에 298명이 지원해 6.0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은 3.56대 1로, 전년 경쟁률 5.33대 1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모집정원이 적은 전형은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가톨릭대 학생부종합(가톨릭지도자추천) 전형은 2명 모집에 30명이 지원해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전국 39개 의대는 전년 대비 1166명 늘어난 3118명을 선발한다. 전체 정원의 67.6% 수준이다. 전년 대비 331명 늘어난 1492명을 선발하는 정시모집보다 증가 폭도 크고 정원도 많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지원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집 인원이 많아지며 합격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교생이 100명가량인 부산의 한 일반고 교감은 “통상 학생부 교과 전형 기준 내신이 1.3등급 이하이면 의대 원서를 안 썼는데 올해는 1.4~1.5등급까지도 합격권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재학생 중 1~2명 정도가 원서를 더 써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상 의대 지원은 6만5000건 정도가 최대치이고 지난해는 5만7000건 정도였지만 올해는 증원 바람을 타고 7만~8만 건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대학 재학 중인 반수생뿐만 아니라 직장인까지도 의대 입시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대 대기업 직장인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수능 접수했고(의대) 수시도 접수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지역 일반고 관계자들도 “작년에 울산대 의대에 붙었던 학생이 더 좋은 의대에 가려고 수능을 다시 보겠다는 학교에 찾아왔다” “타 지역 약대에 붙었던 졸업생이 지난 4일 모의평가 보러 학교에 왔다”고 했다.

2026학년도 증원 원점 논의가 오히려 입시 열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일산의 한 학원장은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의대 원서 쓸 재학생만 20명 정도를 상담했는데 대부분 증원이 철회될 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절박하게 원서를 쓰고 있다”며 “올해 수시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수험강사는 “의대 지망생은(수시접수 가능 횟수인) 6장다 의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절반 이상은 다른 과로 안정 지원하더라도 한두 장 정도는 의대로 상향 지원하는 학생도 꽤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증원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

표하면서 의대에 2030년까지 5조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2조원, 전공의 수련과 대학병원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3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대 의대 전임 교원도 3년간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14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초의학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76억원이 투입된다. 시설 증축도 추진된다. 내년에만 1432억원이 투입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과거 인문사회대학 R&D 등 소외된 분야를 지원해 온 적이 있긴 하지만 단과대학 단위에 이렇게 크고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2026년 이후 예산 투입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민자·서지원 기자

조산위험 제주 ‘쌍둥이 임신부’ 의사찾아 440km 날아 인천행

제주대 신생아중환자실 인력난 “돌볼 의료진 부족, 헬기 이송 결정”

응급실 의사 실명공개 ‘블랙리스트’ 경찰 “관련자 구속 추진, 엄정 대응”

제주에서 조기 출산 위험이 있던 다태아(쌍둥이) 임신부가 의료 인력 부족으로 헬기를 타고 440km 떨어진 인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9일) 오후 1시30분쯤 25주 차고위험 임신부 30대 여성 A씨가 조산 가능성이 있어 이송이 필요하다는 제주대학교병원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보호자와 함께 중앙119 구조본부 호남항공대 소속 소방헬기를 타고 제주에서 직선거리로 약 340km 떨어진 충남 소방항공대로 1차 이송됐고, 이어 충남 소방헬기로 갈아탄 뒤 인

천의 인하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헬기 연료 부족으로 한 번에 이송하지 못하고 충남에 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제주대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16개 병상 중 2개 병상의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근무 중이던 담당 의사가 1명밖에 없어 전원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제주대병원 측은 인하대병원에서 A씨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임을 확인하고 전원 준비를 했다고 한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3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제주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여파로 기존 인원 5명 중 전공의 1명이 나오지 않고, 비슷한 시기 개인 사정으로 교수 1명이 사직하면서 전문의 3명만 남아 있

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2명씩 서던 당직을 1명만 서고 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전문의 1명이 돌볼 수 있는 신생아 수에 한계가 있어 여유 병상이 있어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태아에 25주 차 미숙아 조산이라는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했지만 최근 전공의 사태로 인력이 부족해 이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와 관련,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달림에 대해 그간 총 42건을 수사해 48명을 특정하고 45명을 조사해 32명을 송치하는 등 신속·엄정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중한 범죄행위”라며 “중환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를 시작한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학원가 건물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학원가에서는 통상 매년 의대 지원은 5만~6만 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의대 정원 증원 바람을 타고 7만~8만 건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1]

SELFOTO STUDIOS
나만의 사진관

가을 특선 9월 한달 동안
사진 5' X7' 인쇄 무료 & 촬영시간 10분 추가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나만의 맞춤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 샷 찍어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셉티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이복현, 가계대출 오락가락 정책 사과... “은행 자율관리를”

시장 혼란에 ‘강력개입’ 입장 후퇴
실수요자 기준 등 가이드라인 없어
‘은행에 숙제 다 떠넘겼다’ 비판도
신한, 1주택 처분조건 부담대 허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뒤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자신의 발언들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두 달 가까이 쏟아낸 ‘대출규제’ 발언으로 대출 시장과 소비자가 혼란을 겪은 것과 관련해 10일 공식 사과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5일 이 원장이 “은행권의 손쉬운 금리 인상” 질책과 함께 “강한 개입”을 선언한 이후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커졌다. 이후 시중은행은 경쟁 하듯이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중단,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제한 등의 방안을 내놓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자율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감독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

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력한 개입 의지를 드러낸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목소리다. 그동안 금융당국 간 ‘엇박자’에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의 ‘자율관리’ 발언은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출 정책에 대해 “정부의 획일적 통제보다 은행권의 자율적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금융당국은 ‘뒷짐’을 지고, 은행권의 등을 떠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오락가락 발언에 시장에 혼란을 주더니, 이번엔 사실상 대출관리와 실수요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은행권으로 넘긴 모양새라서다.

앞으로 은행은 세심한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줄이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이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 이상으로 빚을 내 집을 산 투기적 수요를 걸러내는 역

할도 은행이 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시중은행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잔액을 가계부채 관리 목표(경영계획)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총량을 관리하지 못한 은행은 내년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페널티’를 받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달 21일 기준 평균 150.3%다.

은행권이 금융당국 눈치 보느라 우와좌왕하는 동안 실수요자의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실수요자 기준 등 금융당국의 일관된 가이드라인(정책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은행마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수요자 예외 요건’을 제각각 내놓고 있어서다.

10일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다만 1주택자라도 주택대출 ‘당일’에 기준 보유 주택을 매도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염지현 기자**

서울 첫 9월 폭염경보... 오늘도 35도까지 치솟는다

서울 최저 25도, 가장 늦은 열대야
용인서 야의 훈련하던 경찰 탈진
정선 한낮 37도, 청주·안동 36도
전국 줄줄이 9월 최고기온 경신

대야는 오후 6시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가리킨다. 기존 서울의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은 1935년 9월 8일이었다.

대전·부산 등에서도 가을 열대야가 나타났다. 제주도 성산읍은 최저기온 28.5도를 기록하며 ‘관측 사상 가장 더운 가을밤’을 보냈다.

낮에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동해안과 일부 내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주의보·경보)가 내려졌고, 특히 서울·대전·세종 등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계속될 때 내려진다. 서울에 ‘9월 폭염 경보’가 발령된 건 2008년 폭염특보제 도입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틀 연속 폭염경보가 발령된 경기도 용인에선 야의 훈련을 하던 경기남부경찰 기동대원이 탈진하는 사고도 있었다. 훈련은 중단됐고,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 대원은 현장에 있던 급급차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최고기온 기록도 이날 줄줄이 깨졌다. 강원도 대관령은 기온이 30.5도까지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서늘한 지역’으로 꼽히는 이 지역의 9월 기온이

30도를 돌파한 건 1971년 관측 시작 이후 처음이다. 대전은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며, 전날 9월 최고기온 경신(34.9도) 하루 만에 또 신기록을 세웠다. 경기도 수원(33.8도), 충북 청주(36.2도), 전남 목포(34.2도), 강원도 정선(37.1도), 경북 안동(36도) 등도 9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이렇게 이례적인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건 한반도 남쪽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고기압과 열대저압부 사이에서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에도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일부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습도가 높아지며 체감온도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에는 중부 지방을 중



10일 충남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광판에 폭염경보 발령 알람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심으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에 비가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북부가 20~60mm, 남부는 5~40mm다. 비와 함께 늦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천권필·이해준 기자**

문체부 “후원사 페이백 받아 쓴 배드민턴협회장, 법 위반”

‘안세영 발언’ 계기로 한달간 조사
페이백 의혹, 횡령 수사로 이어질듯
“비국대 선수, 국제대회 제한 바뀐다”

체로부터 ‘페이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협회장의 경우 횡령·배임 혐의 수사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선수가 유니폼뿐 아니라 라켓·신발 등 모든 용품을 후원사 제품만 일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경기단체(44개) 중 배드민턴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 건 복싱뿐이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배드민턴에서 라켓과 신발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선수의 결

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이 후원업체에 연간 1억5000만원 안팎의 물품을 별도로 요구해 임의로 활용한 정황도 발견했다. 이 국장은 “김 협회장이 후원업체에 ‘페이백’을 요구하고, 이를 정해진 기준 없이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기부·후원물품 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협회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도, 부회

장과 전무가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총 6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림픽 당시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아깝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같이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에 대해서도 시정의견을 냈다.

현 배드민턴협회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로 5년간 활동하고도 일정 연령(남자 28세, 여자 27세)이 지나야만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도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다. **안세영**

문체부는 “배드민턴처럼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다른 종목은 없다”고 밝혔다.

선수 행동 규정과 관련해 ‘선수촌 내의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조항은 고 최속현 선수 사망 이후 체육계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된 규정”이라며 “배드민턴협회 측에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이날까지 배드민턴 국가대표 48명 중 22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지훈 기자**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9월 HOT 리스팅

부동산 투자, 임대주택 관리의 어려운고민,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의논해주세요.

급매

\$69만
부드브리지
니본빌딩
신골목
방4+
화3 차고2

임대

애쉬번 타운홈 \$3500
방3+화3차고 2 즉시 입주가능

비엔나 \$3500
방3+/화3 차고 1 즉시 입주가능

락빌 \$3,500 방3+/화3 차고 1

페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Eng/Kor) (구원뱃방) (한국어 상담)

Joy Law Group, PLLC. 버지니아 오피스 **703-246-9100 | 703-309-1455**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갑자기 확 오른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시죠?
 그런데도 다른 보험을 알아보시기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보험료를 절감하시려면, 한 해마다 꼭 “비교” 해 보시고
 보험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우리말 바꾸기

들렀다 올까·들렀다 올까

“대전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세종대왕릉에 들렀다.” “귀경길에 속초에 들러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렀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렀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렀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아’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라’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렀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리-’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대전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세종대왕릉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경길에 속초에 들러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러’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특별기고

창립 50주년 기념 기금모금 행사를 앞두고



조이박
워싱턴 가정상담소 이사장

처럼, 1대 이순영 이사장을 시작으로 18대 이사장인 본인까지, 그 초기 정신을 잊지 않으려 무던히 노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사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본 센터를 통해 정식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문화 상담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상담사들과 소장 및 스태프들, 지금의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있게 해준 참으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그분들이 흘렸을 눈물이 마치 나의 마음에도 새겨지는 것 같아 문득 겸허해지게 된다.

워싱턴가정상담소는 지난 50년 동안 한인사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한인사회와 후원자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국 이민 사회가 통상적으로 분류하는 1세대, 1.5세대, 그리

고 2세대의 세대 차이처럼 워싱턴 가정상담소도 세대간의 격차를 줄이고 부정적이기만 했던 상담 문화를 재정립하고자 앞으로의 50년의 시간도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특별히 2세대들과 3세대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인종 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 문화적 요소까지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상담센터로 도약하여 다른 지역과 타소수민족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상담센터로 도약해 보리라 다짐해 본다.

물론 지난 50년 동안 여러 장애물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다. 늘 그랬듯이 모든 직원들과 이사와, 후원자 여러분의 지혜와 힘으로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앞으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50년의 비전을 품고도 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한 50주년 기금모금 행사인 ‘Continuing the Legacy of Service for Healing Hearts and Minds’에 함께 참석해 축하해 주시며, 앞으로도 가정상담소와 60주년, 70주년을 넘어 함께 동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703-761-2225

디아스포라 시선

사과배



전 후석
다큐멘터리 감독

아마 그때였던 것 같다. 일수는 나보고 ‘사과배’라는 과일에 대해 아는지 물었다. 사과와 배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든 사과배는 연변 지역에서 다양으로 재배되었다. 일수는 중국의 조선족들은 스스로를 ‘사과배’라고 부른다고 했다. 사과도 배도 아닌, 즉 중국인도, 조선인도 아닌 애매한 정체성에 대한 서러움과 애환의 표현이었으리라.

재미 한인인 나는 중국의 조선족 친구들 역시 정체성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자신의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디아스포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자아와 소속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다고. 과연 조선족과 재미 한인, 아니, 모든 디아스포라는 과연 언제 온전한 ‘사과’ 혹은 ‘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생존을 위해 혹은 주류에 동화되기 위해 사회

규범과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열심히 살아간다. 그러나 일부는 자신의 소수성, 경계성, 이방인성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지배적인 문화와 체제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비판적 사유란 꼭 어떤 사회운동이나 정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철학적이기도 하다. 12세기 프랑스 신학자였던 생 빅토르의 ‘위그의 명언’을 되새겨보자.

“자신의 고향을 달콤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직 미숙한 초보자이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은 모든 곳을 고향처럼 느끼는 코스모폴리타이며, 궁극의 성숙한 모습은 모든 곳을 타향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이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편안함과 소속감을 느끼는 세계 시민보다 오히려 자기 부정을 통해 이방인을 자처하는 이가 더 성숙한 존재라는 옛 신학자의 글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이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류와 지배계급에 속하고 싶은 욕망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이 ‘자기 부정’과 ‘초월성’을 가장 높은 가르침으로 삼는 것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약육강식과 경쟁, 다툼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힘들더라도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 중심보다 변두리를 선택하고, 의식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보는 것, 그래서 ‘사과’나 ‘배’가 아닌, 그것을 초월하는 ‘사과배’ 그 자체가 궁극의 성숙이고 온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천만영화 속편 '베테랑' 황정민
 마약·폭력·가짜뉴스와 맞서 싸우는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수사관 열연

정해인, 강력반 막내 형사로 출연
 선한 얼굴과 다른 묘한 눈빛 연기



9년만에 돌아온 형사 서도철 “사람은 늙어도 정의는 안 늙어”

영화 '베테랑'로 처음 영화 시리즈물에 도전한 배우 황정민은 “처음 영화 하는 것처럼 떨린다”고 개봉 소감을 말했다.

[사진 CJENM]

“말은 길걸한데 속정 깊고, 하고자 하는 일에 투철한 정신을 가졌죠. 주변에 한 명 있으면 든든하고 무조건 믿고 따를 것 같은. 저도 그런 좋은 선배, 좋은 어른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배우 황정민(54)이 흠뻑 반한 이 남자, 영화 '베테랑' 시리즈(감독 류승완)에서 그가 연기한 강력반 형사 서도철이다. 2015년 여름 1300만 관객을 동원한 '베테랑'이 9년 만에 2편(13일 개봉)으로 돌아왔다. 10일 서울 삼청동 카페에서 만난 황정민은 “‘베테랑’은 수많은 필모그래피 중에도 정말 아끼는 작품”이라며 “영화를 처음 하는 사람처럼 떨린다”고 했다. “저는 늙어도 서도철은 제 마음속에서 늙지 않는 정의로운 인물이지요. 2편 첫 촬영 때 중국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복도를 걸어 가며 명찰을 다는 느낌이 꼭 1편 때 같아서 기분이 묘했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2022), '서울의 봄'(2023) 등 최근 잇따른 악역보다 “선을 넘어도 안 되고 자칫 밋밋해지기 쉬운 서도철 같은 캐릭터가 어렵다”면서 “외줄타듯 연기했다”고 돌아봤다. 1편은 “어이가 없네”라는 명대사의

안하무인 재벌 3세 조태오(유아인)와 명확한 선악 구도를 보였지만, '베테랑2'는 사적 복수를 내세운 연쇄 살인마 '해치' 캐릭터를 통해 “정의에 관한 속 시원한 해답보다 질문 거리를 던졌다”(류승완). 가벼운 코미디를 다소 덜고, 사회에 만연한 폭력과 마약, 가짜뉴스 등 고민도 깊어졌다. 올 5월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심야 상영) 부문에 초청돼 “1편의 코미디 톤을 낮추고 더 날카로워진 후속작”(스크린데일리)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폭력을 엄중하게 다룬 긴장감 넘치는 롤러코스터”(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 등 평가를 받았다. 공동각본을 겸한 류승완(50) 감독은 전날 언론 시사 후 간담회에서 “몇 가지 스토리 중 황(정민) 선배님과 상의 끝에 지금의 버전으로 진행하게 됐다”면서 “서도철이 곧 황정민이다. 자연인 황정민의 인간적이고 배려심 있는 모습, 성숙하고 지쳐가는 모습이 녹아있다”고 밝혔다. 2편에선 아버지로서 서도철의 성장통도 담는다. “선배님이 조태오 잡는 걸 보고 경황이 됐다”는 빼어난 전투력의 일명 'UFC 경찰' 박선우(정해인)는 서도철의 사회적 아들이라면, 집에선 “애들은 싸

우며 크는 것”이라고 그가 의면해온 고교 2학년 아들이 학교폭력에 휘말린다. 공교롭게도 촬영 당시 황정민의 아들 역시 고교 2년이였다. 아들과 실재론 사이 좋다는 그는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이던 서도철이 마지막에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했다”면서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하고 안 친했지만 부모가 되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서도철이 자기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는 어른, 사과할 줄 아는 어른이 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함께 연기한 정해인에 대해 “(그가)

나오면 모든 관객이 무장해제된다. '서울의 봄'에서도 느꼈잖나. 그 친구의 국화 같고 뽀송뽀송한 '엄친아' 얼굴, 그 묘한 눈이 제 연기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더 강해진 액션 소감을 묻자 “더는 액션 못 하겠다고 농담할 만큼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류 감독이 정교하게 안무를 짰 덕에 어렵지 않았다”고 돌아왔다. 사적 복수 살인 소재를 두고선 “좋은 살인 있고 나쁜 살인이 있냐. 살인은 살인”이란 대사로 대신 답했다. 류 감독도, 그도 영화 속편은 처음이다. 황정민은 “‘베테랑’ 1편 때도 ‘리셀웨폰’ 시리즈처럼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랬었다. 배우가 영화 시리즈물을 갖는 건,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저한테는 ‘베테랑’이 시작”이라고 했다. 3편을 예고하는 쿠키 영상과 관련해선 “2편이 잘돼야 될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국제시장'(2014) '베테랑'을 이은 그의 3번째 천만 돌파작 '서울의 봄'이 한창이던 올해 초 나온 감독 영화 '호프' 촬영을 마쳤다. 지난 7-8월엔 국립극장에서 셰익스피어 연극 '맥베스' 타이틀롤을 맡아 “2시간 동안 감독의 ‘컷’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쏟아내는 카타르시스”를 흠뻑 느꼈다. 올해 추석 연휴 한국 대작 영화 개봉은 '베테랑2'가 유일하다. 개인 통산 네 번째 천만 흥행 가능성을 묻자 황정민은 몸을 낮췄다. “너무 어려운 숫자고 원할 수도 없지요. 일단 손익분기점(400만 관객)만 넘으면 좋겠습니다.”

나원정기자

“개화파 지식인 유길준의 설렘과 꿈, K컬처로 꽃피워”

피바디에섹스 박물관 하티건 관장
 조선 유학생이 미국에 남긴 것·부채 140년전 '코리아 컬렉션' 만든 계기 한국실 대폭 확장... 내년 5월 재개관

1799년 설립돼 미국 박물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의 피바디에섹스 박물관. 2003년 문을 연 이곳 한국실 이름은 '유길준 갤러리'다. 19세기 말 고종의 명을 받아 미국을 방문했던 개화파 지식인 유길준(1856~1914)의 이름을 따왔다. 당시 유길준의 도움으로 박물관이 미국에서 최초로 한국 유물을 수집한 것을 기리는 의미다.

연간 방문객 25만명(2019년 기준)을 헤아리는 피바디에섹스 박물관이 내년 5월 유길준 갤러리를 대폭 확장해 재개관한다. 한국 기관들과 이를 협의하기 위해 최근 내한한 린다 하티건 관장



은 지난 3일 인터뷰에서 “한국 관련 컬렉션을 가장 먼저 시작한 박물관으로서 시대 변화에 맞게 현대 컬렉션을 늘려가는 중이고 재개관전도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조선시대부터 한국인의 삶이 어땠나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K컬처'와 관련해 훨씬 다양한 관심과 요구를 전시물로 드러내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박물관은 최근 백남준 미디어아트 작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박물관이 소장한 한국 유물은 약 2000여점으로 대부분 조선 후기 회화·복식·민속품 등이다. 이 컬렉션의 시작에 유길준이 있다. 1883년 보빙사(방미 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에 간 유길준은 한국에 관심이 많던 당시 박물관장(에드워드 실베스터 모스)과 교본 속에 세일럼에 정착해 '유학생 1호'가 됐다. 그는 1884년 말까지 머무르면

서 박물관 측이 독일인 과물 뮐렌도르프를 통해 조선 유물 225점을 사들일 때 자문해줬다. 귀국할 땐 자신의 옷·갓·신발·부채 등을 남겨 컬렉션에 보냈다. 당시 관장과 오고 간 40여통의 편지는 교육과 개화에 목말랐던 젊은 지식인의 고민을 드러낸다. 이 유물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이 1994년 특별전 '유길준과 개화의 꿈'을 개최하면서 국내에도 소개됐다.

이번 재개관은 피바디에섹스 박물관의 전면 확장에 따른 것으로 예산은 모두 박물관이 부담한다. 하티건 관장은 “한국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데 규모를 키우는 건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260㎡(약 79평) 규모로 늘어나는 한국실은 조선시대 나전칠기 등 80여점을 상설 전시하면서 현대 한국작가와 협업도 모색한다. 재개관전에선 정연두 작가의 사진전과 함께 유길준의 편지를 모티브로 삼은 양숙현 작가의 미디어아트가 선보인다.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미국 피바디에섹스 박물관의 린다 하티건 관장(가운데)과 수 김 수석기금 담당(왼쪽), 김지연 한국 담당 큐레이터. 아래 사진은 박물관이 소장한 유길준의 것.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지난해부터 박물관 한국실을 담당해온 김지연 큐레이터는 “당시 유길준이 전통 사회에서 일종의 세계화를 겪으면서 가졌던 설렘, 슬픔과 같은 걸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느낀다”면서 “유물이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꿈꾸는 것과도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재개관 상설전은 조선 후기부터 20

세기 초까지 한국미술과 문화를 두루 조명하면서 한국의 장인·예술가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을 헤쳐갔는지를 보여주려고 해요. 한국인의 뿌리 깊은 생명력과 창의성이 오늘날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겁니다.”(하티건 관장)

강래만 문화선임기자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미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부
8. 크레딧 리부, 관리 방법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림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재투자 상담
1031 Exchange Specialist

부동산 장기 투자해서 매매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담되실 때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시설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정부가 시민들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이후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블랙리스트는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랐다. 급기야 국민 생명의 최후 보루인 응급실 근무 의사까지 검박하는 명단이 등장했다.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져 가는 마당에 응급의료를 지탱하는 의사를 괴롭히는 행위는 묵과하기 어렵다. 방식 또한 악의적이다.

‘감사한 의사 명단’ 등 사이트엔 ‘응급실 부역’이라며 병원별 응급실 근무자 인적사항을 띄웠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 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며 비꼬는가 하면, “일급 520만원 근무자 분들의 진료정보입니다”라는 비아냥도 서슴지 않는다. 명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명단까지 공개했다. 의사들의 행위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열하다.

현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강행이 의사들로서는 못마땅할 것이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를 향한 반감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치면 안 된다”며 불안해하는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응급실 근무 의사를 압박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간신히 지탱해 온 응급 현장을 완전히 마비시키려는 의도 말고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조차 “국민

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을 데다.

지금 응급실은 의료 사태 이전 평상시 대비 73%(지난 2일 기준)의 의사들로 어렵게 끌여가고 있다. 예년 명절과 차원이 다른 격무가 예상되는 여건에서도 환자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버텨 온 의사들이다. “이런 상황이 힘들었다면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정성필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말에서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의 마음이 읽힌다. 이런 헌신의 뒤에서 블랙리스트나 만드는 의사들은 부끄럽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연휴를 반납하는 노고에 합당한 대우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중요법으로 매번 고비를 넘기기에 한계가 있다. 현 의료 위기는 의료계와 소통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혜와 안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그제 시작한 의대 수시모집 접수에서 일부 전형 경쟁률이 벌써 10대를 넘어섰다. 의협은 2025년 증원 백지화 같은 비현실적 요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즉시 대화에 참여하라. 협의를 성공으로 이끄는 건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응급실 블랙리스트처럼 적대감만 유발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만 원만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최후 보루인 응급실마저 위협하는 검박 엄벌 필요
유감 표명한 의협, 대책 마련 위해 대화 참여하길**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대출 규제에 소비자만 골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대출 정책에 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원장은 어제 국내 은행장과 의 간담회 직후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과 소비자, 은행 업무 담당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오락가락 발언에 은행이 대출 정책을 뒤바꾸며 시장에 일대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나온 뒤늦은 사과였다.

지난 7월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원장이 대출 억제에 주둔하자, 은행은 일제히 대출 금리를 끌어올렸다.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만 오르는 역주행이 벌어졌다. 그러자 지난달 25일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며 “더 세계 개입하겠다”고 엄포를 놔다. 이를 뒤에는 사실상의 총량 규제 방침을 밝히며 은행을 압박했다.

놀란 은행들이 금리 인상 대신 대출 한도를 줄이고 1주택자 대출 제한 등으로 문턱을 높이자 지난 4일에는 “실수요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냉담과 온탕을 오가는 그의 발언에 은행의 대출 정책은 갈지자 행보를 이어갔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대출 규제에 “이자보다 더 무서운 이 원장의 입” “이 원장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은 몸살을 앓았다.

금감원장의 사과에도, 대출을 둘러싼 상황이 나아

질지는 의문이다. ‘자율’을 앞세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과 대출 실수요자 보호 책임을 모두 은행권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 대출 총량제라는 페널티를 받지 않으려면 대출 총량을 줄이면서도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대출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은행마다 ‘뺨질식 대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대출 실수요자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출을 둘러싼 혼란이 빚어진 건 대출 규제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탓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금융 당국이 대출을 임의로 막으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이른바 관치에 의한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 담보가 있고, 상환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 은행 등 금융사가 적절한 심사를 통해 대출을 집행하는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사라지며 실수요자만 골탕을 먹게 됐다. 정부 내의 정책 조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가계대출 급증을 주도한 정책 대출과 관련해 대상을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 또 다른 정책 엇박자다.

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연속성, 예측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의 대출 관련 정책은 낙제점이다. 금융당국의 일이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뒤늦은 사과가 사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일본, 얼버무리기 대상 되나

고정애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오늘은 『맥베스』(윈오숙 역)로부터 시작한다.

“왕, 왕, 왕. 악마의 이름으로 묻건대, 네놈은 또 누구냐? 오라, 저울의 양쪽 눈금에 대고 맹세하는 사기꾼 놈이로구나. 신의 이름을 팔아 잘도 반역을 저질렀다 만 하늘을 상대로 사기를 치진 못했구나. 그래 어서 오나라, 이 사기꾼 놈아.”

술에 취해 지옥문을 지킨다고 착각한 문지기의 독백이다. 셰익스피어가 누군가. 그저 낫두리일 순 없다. 개신교 국가에서 탄압 속에 사는 가톨릭 신자의 어법, ‘얼버무리기(Equivocation)’에 대한 조롱이다.

당시인 1605년 일군의 가톨릭 인사들이 개신교 왕과 지배계층이 의회에 참석하는 순간, 의사당을 폭파할 음모를 세웠다. 이른바 ‘화약 음모 사건(Gunpowder plot)’이다. 사전에 발각돼 음모자들은 무참히 처형됐다. 이때 함께 처형된 사제(헨리 가넷)가 있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게 바티칸과 연결된 역모로 몰렸다. 그의 ‘얼버무리기 논문’이 반역의 증거가 됐다. 가톨릭 신자임을 인정하면 박해를 받으니 인정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신앙을 부인할 순 없는 이들을 위한 글인데도 말이다. 화약 음모 사건을 계기로 얼버무리기 자체가 대단한 문제가 됐다. 문지기의 말 중 ‘양쪽 눈금에 대고 맹세하는 자’란 냉소에서도 완연하다. 원문엔 ‘얼버무리는 자’인데 ‘사기꾼’으로까지 번역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그건 지배층의 논리다. 사실을 말하는 게 위험한 시대, 달리 선택할 방법이 있었겠나.

얼버무리기가 떠오른 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일부 단체들의 ‘친일’ 낙인 찍기가 너무도 거칠어서다. 친일만으론 부족했는지, ‘뉴라이트=친일’로 확장했다. 이젠 공직을 염두에 둔 멸절한 사람이라면 아예 일본과 관련해선 교과서 수준을 벗어난 발언을 해선 곤란하겠다 싶을 정도다. 교과서도 잘 골라야 하고.

당장 광복회의 뉴라이트 판별법을 보자.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도 있던데, 자신들 주장대로

면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인데 그때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아닌가. 그 이승만은 뭐라고 부를 뵈가. ‘식민사관과 식민지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도 뭐라던데, 1920년대 경성 시내를 활보하던 모던 걸과 모던 보이 얘기를 하면 혹 ‘은연중’이라고 오해하는 건 아닌가.

과거는 일면적이지 않다. 재임 중 ‘제2건국위’를 꾸린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 목포지부에 들어갔다. 그는 2011년 쓴 자서전에서 “우리 민족이 독립해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DJ가 “해방공간에서 민족을 구하려고 동분서주했던 뼈어난 인물”이라고 본 건준위원장 여운형을 두고 당시 미국은 “일본이 패망하면서 여운형에게 거금을 주고 구명도생(苟命圖生)했다. 도덕적

**이념 재단 힘든 역사 행위의 복잡성
야권 등의 과도한 친일 낙인찍기로
지적 호기심이 위험한 일 돼버려**

용기가 부족하다”(신복룡)고 봤다.

극단적 사례겠지만, 식민지 조선 출신으로 일제의 포로감시원으로 잔혹한 행위를 해 전범이 된 이들이 또 어떤가. 우리 사회는 몽푁그러 피해자의 범주에 넣는다. 사학자 임지현은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에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외부 세계를 전유하며 꾸불꾸불 살아가는 역사적 행위자의 구체적인 삶은 추상적인 이념의 잣대로 측량할 수 없는 변화 무쌍한 것”이라며 “집착적 무죄의 코드가 기억 문화를 지배하는 한, 식민지 조선인이나 탈식민지 한국인이 가해자일 수도 있고 또 가해자이기도 했다는 기억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제한된다”고 했다.

역사를 박제해 두어선 안 된다. 다양한 면을 볼 수 있어야 배울 수 있다. 논쟁적 주장이라면 논쟁으로 맞서면 된다. 그러나 지금의 근대사는 엄청난 열정으로 휘두르는 무기가 되고 있다. 당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은 위험천만한 일이 되고 있다. 어찌해야 하나. 안 배우기? 배우더라도 얼버무리기? 참 불품없는 시대다.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중앙일보

| | |
|--|---|
| 구독신청: 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제1차 인쇄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朝日新聞,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안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September 11,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통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용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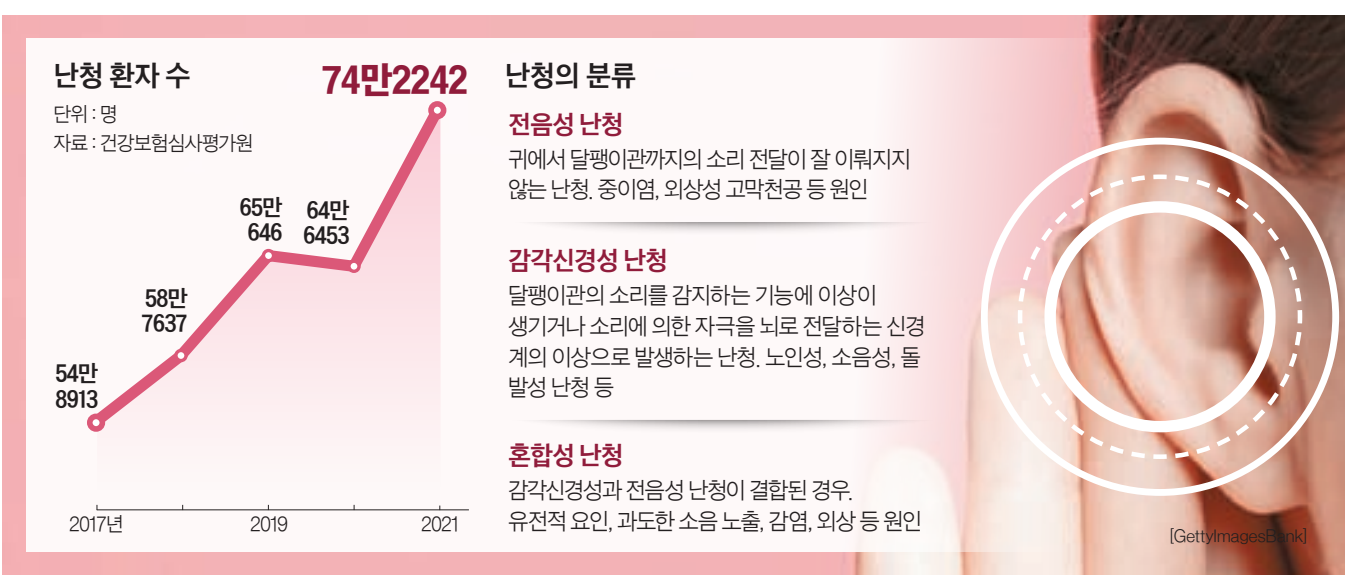
‘이어폰 큰소리’ 젊은 난청 늘어... 60%-60분 룰 지켜라

(최대 음량의 60% 이하, 하루 60분 이내)

귀는 예민한 신체 감각 기관이다. 소리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문제를 알린다. 소통의 중요한 도구로서 다른 사람과 정보를 교환하며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크고 작은 자극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청력 손실은 고령층에게 흔히 나타나다고 알려졌지만, 최근엔 음향기기 사용이 늘면서 젊은 난청 인구가 많아졌다. 10~40대 젊은 난청 환자가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난청을 더는 노인만의 병으로 여겨선 안 되는 이유다. 나이가 들수록 난청에 취약하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청력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귀의 날(9월 9일)을 계기로 정상 청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핵심 정보를 짚어 봤다.

아근이 잦은 직장인 최모(32)는 업무 시간과 취침 시간을 제외하곤 늘 이어폰을 착용했다. 출퇴근길이나 휴식시간에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게 일상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귀가 멍멍해지면서 이명이 나타나다 사라지길 반복했다. 최씨는 점점 주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최씨는 “난청은 나이가 들어 앓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지금이라도 청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청환자, 2021년 74만 2026년 300만 예상
난청은 말 그대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 아니라 이유로 귀 건강을 챙기는 일엔 소홀한 경우가 많다. 난청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



환자 매년 증가, 30%가 10대~40대
소음성 난청, 잠시 귀 멍해지고 이명
한쪽 이상 ‘돌발성 난청’은 응급상황
의심증상 땀 초기치료가 매우 중요

르면 난청 환자는 2017년 54만8913명에서 2021년 74만2242명으로 크게 늘었다. 대한이과학회에선 난청 인구가 2026년 300만 명, 2050년엔 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이현진 교수는 “난청의 원인은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 노화가 진행돼 고주파 영역의 고음역부터 청력이 조금씩 나빠지는 게 일반적이다”며 “큰 소음에 오랜 시간 노출되거나 중이염 반복 등으로 난청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어느 날부터 주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학업·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단절로 인한 상실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난청이 사회적 암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 교수는 “난청이 생기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잃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며 “심하면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난청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특

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 ‘돌발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 돌발성 난청은 귀 응급 질환이다. 영구적 청력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기 쉽다. 이뿐 아니라 노인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과는 달리 대부분 한쪽 귀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청력 저하, 이명, 귀 멍멍함, 어지럼증 등이 대표적이다. 고려대 안산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최준 교수는 “돌발성 난청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30~50대가 빈번하게 경험한다”며 “환자의 절반 이상이 청력의 감소나 영구적인 손실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귀는 지속적인 큰 소리 자극에 약하다. 장시간 음향기기를 착용하거나 공연장·클럽 등에서 큰 소리에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 위험이 커진다. 소음성 난청은 소리 자극에 의한 청력 이상을 말한다. 어느 정도 충분한 소음 강도에 일정 기간 노출되면 생길 수 있다.

신영경 기자
▶ 4면 ‘이어폰’으로 이어집니다

- 난청 체크리스트**
- ※3개 이상 해당하면 전문의 검진 권장
 - 전화통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TV 소리를 너무 높여 주변 사람이 불평한 적이 있다
 - 상대의 말을 이해 못해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 적 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 소리를 듣기 어렵다
 - 상대에게 대화 내용을 반복해 달라고 부탁한다
 - 상대가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 특히 어린이나 여성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 상대의 말을 잘못 이해해 주위에 피해를 준 적 있다
- 자료: 미국 국립보건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삐' 소리 땀땀고 그냥 어지럽다? 반나절 넘게 지속 땀 귀 건강 경고음

찾은 귀 질환 방치 금물 귀는 오감 중 하나인 청각을 받아들여 소리를 듣는 기관이다. 몸의 평형감각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역할도 한다. 최근 각종 귀 질환을 호소하는 현대인이 늘었다.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청력 기능이 떨어지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는 식이다. 하지만 정작 귀 건강에 대한 경각심은 낮은 편이다. 크고 작은 증상을 외면하고 질환을 방치하다 고생할 수 있다. 귀의 날(9월 9일)을 맞아 주요 귀 질환 정보와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아봤다. 김선영 기자



중이염은 가장 대중적인 귀 질환이다. 귓구멍 안쪽 고막 뒤에 있는 중이에 생긴 염증을 말한다. 성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중이염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0만 명이 넘는다. 주요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다. 7세 미만의 유소아는 성인보다 이관의 구조가 미숙해 중이염이 발생하기 쉽다.

를 위해선 수술이 필요한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이염을 예방하려면 환절기에 상기도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금연하고 면역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예방접종이 도움된다. 알레르기나 비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도 증상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중이염에 걸리면 주로 귀 안쪽의 압박감과 박동성 통증을 호소한다. 심하면 고막이 찢어져 고름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발열과 콧물, 코막힘처럼 감기 증상 역시 동반한다. 급성 중이염은 대개 특별한 후유증 없이 잘 치유된다. 하지만 염증 상태가 오랜 시간 지나 통증·발열 증상 없이 귀에 고름이 반복해서 나오거나 청력 저하나 이명으로까지 진행되면 만성 중이염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젊은 층에서 돌발성 난청 환자가 늘었다. 어떤 전조 증상 없이 수시간에서 2~3일 이내에 청력이 떨어지는 병이다. 초기 치료 여부에 따라 청력 회복 정도가 달라지는 응급 질환이다. 명지병원 이비인후과 심대보 교수는 "돌발성 난청의 80~90%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특발성"이라며 "젊은 층에선 고음을 장시간 듣는 음악 청취 습관, 휴대전화 사용, 스트레스와 같은 불안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만성 중이염 원치 위해선 수술 고려
심한 경우 염증이 주변의 신경이나 뇌로 퍼져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유성선별원 이비인후과 권기훈 전문의는 "급성 중이염은 약물치료로 증상을 멈출 수 있다. 경구 항생제와 더불어 귀에 넣는 항생제 이용액이 효과가 좋으며 소염진통제가 증상 완화에 도움된다"며 "만성 중이염의 경우 이 같은 방법은 효과가 일시적이므로 완치

주요 증상은 갑자기 '삐' 소리가 나는 이명과 귀가 먹먹해지는 이중만감이다.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증상이지만, 반나절 이상 지속한다면 병원을 찾는 게 좋다. 증상이 나타나고 3~7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된다. 난청 정도가 경하다면 스테로이드를 통한 약물치료를, 심하다면 스테로이드와 고압 산소 치료를 함께 받을 것을 권한다. 고압 산소

치료는 2기압 이상의 높은 압력으로 산소를 체내에 공급함으로써 청각 기능의 회복을 돕는 방법이다.
돌발성 난청을 막으려면 평소 귀의 피로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휴대용 음향기기는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하루 1시간 이내만 사용한다. 술과 담배, 커피 등 귀 신경을 자극하고 혈관 수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가급적 피한다. 주기적인 청력 검사로 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다.

귓속 이석 기관에 있는 이석이 떨어져 나와 평형기관인 반고리관에 들어가 신경을 자극하면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이석증과 달팽이관, 세반고리관에 있는 내림과액이 늘어나 귓속 압력을 높여 발생하는 메니에르병이 대표적이다. 이석증은 머리를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때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회전성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증상 지속 시간은 짧은 편이며 움직임을 멈추면 증상도 사라진다. 이석이 신경을 자극하지 않도록 위치를 옮기는 이석치환술로 치료한다.

반면에 메니에르병은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어지럼증이 없어지지 않으며 난청·이명과 같은 청각학적 증상을 동반한다. 주로 이노제로 내림과액의 양을 줄임으로써 증상을 완화한다. 강동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변재용 교수는 "둘 다 재발률이 높으므로 한 번이라도 병을 앓았다면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며 "이석증 환자는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햇빛을 통해 비타민D를 체내에 흡수시키면 재발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메니에르병 환자는 카페인, 술, 담배, 소금, 스트레스를 멀리하면 위험성에서도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발 피하려면 카페인·술·담배 멀리
귀 질환은 어지럼증을 유발하기도 한

기고 이익성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과 교수

호전 반복되는 심한 어지럼증,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도

어지럼증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증상이지만, 때로는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자세 변화와 같은 특별한 유발 요인이 없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지럼증은 주변이 돌거나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현상, 중심을 잡기 힘들어지는 느낌, 앞이 아득해지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증상 양상만으로는 어떤 질병인지 알기 어렵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혈관성

위험 요인이 있는 고령 환자가 갑자기 중심을 잡기 힘들거나 주변이 도는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면 뇌졸중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소뇌 부위에 뇌졸중이 생기면 다른 증상 없이 어지럼만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심한 어지럼증이 5~10분 지속하다가 갑자기 괜찮아지는 증상은 뇌혈관의 일시적인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한 것일 수 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어, 증상이 호전됐더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석증이라고 흔히 부르는 '양성 돌발성 두위현훈'이다. 주로 자세 변화 시 발생하며, 이석정복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석은 나이가 들면서 작고 약해지기 때문에 고령일수록 이석증이 더 잘 생기지만, 20~40대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만큼 젊은 나이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 골다공증이 있거나 비타민D가 부족한 경우 잘 생긴다. 머리를 다친 적이 있거나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등 내이 질환이 있

었던 경우 이차적으로 이석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석증은 1년 내 20%에서 재발할 정도로 재발이 흔하다. 재발을 예방하려면 비타민D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필요시 먹는 약이나 주사제로 보충하는 것이 좋다. 기립성 저혈압도 어지럼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짧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당뇨가 있는 고령 환자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전립샘비대증 관련 약물이나 고혈압 약제 등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앓았다 일어날 때만 어지럼증이 짧게 있

었다면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 봐야 한다. 기립성 저혈압 치료는 원인에 따라 탈수가 원인이라면 충분한 물을 마시고, 약이 원인이라면 약을 변경하거나 복용을 중단하면 된다. 신경계, 내분비계, 심장 질환 등이 원인이라면 질환을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증상 개선을 위한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다. 어지럼증이 처음 생겼을 당시의 유발 요인, 지속 시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어지럼증이 있다면 반드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혜민한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0.9% | 0.6% | 0.6% | 53.9% | 42.9% | 2.3% | 0.0% |
| 매우 좋음 | 양호 | 노화 시작 | 주의 | 나쁨 | 매우 나쁨 | |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성,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찌릿찌릿 바닥 못누움
영치
포리백
좌골신경통

엎드리면 통증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구부리기 힘들다
75°
30°
뒤로 피기 힘들다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툄
발목 뻠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힘이 없어 집지 못지 못함
방아쇠
피지지 않음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혜민한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월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명절 선물 살 땐 전기식 마크 확인, 전은 기름 제거해 섭취

“**‘전기식 마크’ 식약처 안전성 평가 전 데울 땐 전자레인지가 열량 줄여 글리코젠, 체지방 되기 전 운동해야**”

건강하게 추석 나기

추석 연휴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명절에는 가족과의 만남, 모처럼의 긴 휴식에 너도나도 들뜨기 마련이다. 그만큼 방심과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커진다. 평소와 다른 생활 패턴, 식단 등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쉽다.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명절 전·중·후 유념할 점들을 짚어봤다.

명절 전 별초할 때는 밝은색 긴 옷 입기 추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별초 작업이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예초기와 별 쏘임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예초기 사용 중에는 칼날이 돌아가면서 신체에 베이거나 잡초 속 흙과 돌 조각이 튀어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다. 예초기에 보호 덮개를 부착하고 보안경, 안전화 등의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별이 나타났을 때 도구나 팔을 휘두르는 일은 금물이다. 자칫하면 별을 자극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대신 머리를 가린 채 신속하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별은 어두운 색에 공격성을 보이니 밝은색에 덧입는 피부를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소매의 옷을 입는 게 좋다. 주스나 과일 등 단 음식은 별을 끌어들이기 쉬우니 작업 시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 이미 별에 쏘였다면 신용카드로 피부를 살살 긁어 벌집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찜질을 한다.

이 시기 가족에게 줄 명절 선물을 사는 사람도 많다. 추석 단골 선물 중 하나는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포장 겉면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정마크(작은 사진)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 기능성,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의미다.

만약 문구와 인정마크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돼 건강기능식품과는 구별해야 한다. 수입 제품의 경우 정식 통관 검사를 거쳤다면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기해 두니 구매 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명절 중 식사 순서 조절해 과식 예방

명절은 흔히 ‘다이어트 최대 고비’라 불린다. 먹거리가 풍성한 데다 송편, 전, 잡채 같은 고열량 음식들이 주로 밥상에 오르기 때문이다. 마음 놓고 먹다가는 체중계 눈금이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 소화불량이나 위산 과다 분비로 역류성 식도염을 겪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열량을 낮추는 조리법을 실천해 보자. 전을 만들 때는 두부·버섯·채소 등을 주재료로 활용하고 부침 반죽이나 튀김옷은 최대한 얇게 한다. 전과 부침의 기름은 조리 후 키친타월을 이용해 제거해 준다. 식은 전을 다시 데울 때 기름을 두른 팬보다 전자레인지로 이용하는 것도 열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또 육류는

튀기거나 볶는 대신 굽거나 삶아 조리하고 양념으로 설당이 아닌 단맛이 나는 배·키위·파인애플 등의 과일을 사용한다.

음식을 먹을 때도 요령이 필요하다. 의정부지대병원 소화기내과 손병관 교수는 “음식을 섭취할 때 평소 먹는 양만큼 개인 접시에 덜어 먹거나 포만감이 높은 채소부터 먹으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며 “식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30분 정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충분히 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추석 연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명절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가족 간 대화에서 기인해서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라며 지나치게 간섭하는 말은 피하고 직설적인 표현 역시 삼간다.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는 “특히 취업이나 결혼, 출산 문제처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명절 후 급하게 찜살 빼는 골든타임은 2주 명절이 끝나도 연휴 누적된 피로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후유증을 앓는 사람이 많다. 명절 후유증을 극복하려면 생체리듬을 본래대로 되돌려놓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하루 6~7시간 수면을 유지한다. 피로감으로 낮잠을 자야 한다면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낮 산책으로 햇빛을 쬐면 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다량 분비돼 쉽게 잠들고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며 뭉친 근육을 이완해 주는 것도 후유증 회복에 도움된다.

연휴의 흔적은 또 있다. 늘어난 몸무게다. 보통 단기간에 찜 살은 지방이 아닌 다당류인 글리코젠이 일시적으로 축적됐을 가능성이 크다. 글리코젠은 지방보다 쉽게 빠져 동일한 1kg이라도 지방 대비 7분의 1 정도의 열량만 소비해도 뺄 수 있다. 단, 감량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글리코젠은 몸에 쌓인 지 2주가 지나면 체지방으로 바뀌어 빼기가 더 힘들어진다. 늦지 않게 운동과 식단 조절로 없애는 게 좋다.

더불어 명절 이후 밤마다 손이 저리고 아프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음식 준비에 상처, 찰상 등으로 손목이 혹사당해 손목터널증후군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손목터널증후

군일 때는 엄지부터 약지까지 통증과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밤이면 증상이 더 악화할 수 있다. 강릉아산병원 정형외과 최진우 교수는 “조기 치료를 놓치면 손의 운동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엄지두덩근 약화로 젓가락질, 필기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미세한 작업이 필요한 동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수 기자

Tip

이동 중에도 건강 행거요

한 시간마다 10분씩 스트레칭
연휴에는 극심한 교통 체증에 장거리 운전으로 목과 허리, 어깨 통증이 유발된다. 특히 장시간 운전하며 안전벨트를 오랫동안 매면 쇄골 부근의 압박이 이어져 손과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시간에 한 번씩은 휴게소에 들러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며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다. 운전할 때는 등받이를 100~110도로 유지한 채 엉덩이를 좌석 깊숙이 넣고 등은 등받이에 붙어 앉으면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을 최소화해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30분에 한 번씩 차 환기하기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 채 운전하기 쉽다. 오랜 시간 창문을 닫고 운전하면 차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피로를 유발해 졸음 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적어도 30분에 한 번씩은 창문을 활짝 열어 차 안을 환기하고 맑은 공기를 쉴러는 게 바람직하다.

멀미약은 1시간 전 복용
승용차는 물론 기차와 고속버스를 탈 때 멀미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다. 멀미를 줄이려면 대중교통 탑승 시 복도보다 전방이 잘 보이는 창문 주변에 앉는 게 좋다. 먹는 멀미약의 경우 승차 30분~1시간 전에 복용하고 붙이는 멀미약이라면 4시간 전에 붙여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단, 멀미약의 주요 성분인 스코폴라민은 부교감신경을 억제해 멀미를 방지하는데, 붙이는 형태에 더 많이 포함돼 있다. 만 16세 미만은 사용하지는 안 된다.

도움말=박재민 의정부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원모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한국 치매 환자 100만, 경도 인지장애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야”

인터뷰 최성혜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퇴행성 뇌 질환인 치매는 한국인이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다. 뇌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결국 누군가 이들을 돌보는 간병을 담당하게 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은 치매 환자 규모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치매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추정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상을 유지하는 능력을 지켜 주는 것이 중요한 배경이다. 치매 극복의 날(9월 21일)을 계기로 대한치매학회 최성혜(인하대병원 신경과 교수) 이사장에게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유지하는 치매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들었다. 권선미 기자

-치매 진단을 받으면 여전히 숨기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병을 숨길수록 더 빠르게 나빠진다. 치매는 뇌 인지 기능이 떨어져 스스로 어떤 일을 판단·수행하기 힘들어지는 질환이다.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다. 외출했다가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치매라는 질병 자체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가족을 괴롭히는 병이란 부정적인 편견 대신 함께 생활하면서 동행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치매와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밥 먹기, 옷 입기, 세수·양치하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조차 수행하지 못하면 옆에서 돌보는 보호자의 삶의 질도 함께 떨어진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국가·가족의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걱정스럽다.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면 돌발 행동으



최성혜 이사장은 “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오감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성욱 객원기자

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치매 중증도를 낮추려면 남아 있는 뇌세포를 자극해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돕는 인지 중재 치료가 필요하다. 대한치매학회에서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유지를 강조하는 일상예찬 캠페인을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는 이유다. 올해도 서울·경기도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모집한 치매 환자와 보호자 200여 명이 일상예찬 캠페인에 참여했다.”

-올해 일상예찬 캠페인은 어떻게 이뤄졌다.

“치매는 일상에서 오감을 통해 뇌를 지속해서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

한치매학회에서 국립현대미술관과 10년째 매년 미술을 활용한 인지 중재 치료를 진행하는 배경이다.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외출이 힘든 치매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올해는 ‘일상예찬-함께 만드는 미술관’을 주제로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인지 중재 치료를 지원했다. 울림박물관, 대전 엑스포공원, 선유도공원 등의 조경을 담당했던 정영선 조경가가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를 주제로 진행한 전시를 보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야외 공원에 직접 조성한 정원을 견고 화분에 씨앗을 심으면서 과거 기억을 되짚으며 대화한다. 그 자체가 오감을 자극하는 인지 자극 치료다. 뇌의

예비 용량(Cognitive reserve)을 늘려 치매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한치매학회는 일상예찬 캠페인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치매 환자를 위한 미술관 교육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유튜브 ‘기억을 부탁해’라는 채널로 집에서 실천하기 좋은 운동법도 소개하려고 한다.”

-치매는 초기에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다. 치매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 현재의 치매 치료 목표도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준이다. 진행 속도를 늦춰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는다. 물론 레캠비·키순라 등

치매 신약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임상 연구에서 레캠비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인지 장애 악화를 27%, 키순라는 35% 늦춘다. 그런데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뇌 인지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경도 인지장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경도 인지장애 단계부터 예방적 대응이 중요해 보인다.

“경도 인지장애는 뇌에서 보내는 강력한 경고다. 같은 연령대와 비교해 뇌 인지 기능 감퇴 속도가 빠르지만 아직은 독립적인 판단·생활은 가능하다. 치매로도 분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뇌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가 달라진다. 참고로 65세 이상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의 10~15%는 치매로 진행된다. 정상 노인의 매년 치매 진행 비율은 1~2%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치매로 발전할 확률이 10배나 높다. 병적으로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빠른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

-치매 예방을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없나.

“특별한 것은 없다. 다 알고 있는 것이다.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맑이 날 정도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지인과 만나 대화하면서 사회 활동을 지속하고, 술·담배는 줄이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 날짜가 며칠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줄로 매일 일기 쓰는 것도 좋다. 뇌 활성도를 높여 치매 진행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를 꾸준히 잘 실천하면 된다.”



대한치매학회는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10년째 미술을 활용한 인지 중재 치료인 일상예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1면 '이어폰'에서 이어집니다

특히 주변의 소음을 이기려고 이어폰의 음량을 높이는 행위는 위험하다. 이어폰의 최대 음량은 100dB(데시벨) 정도다. 15분 이상 노출되면 청력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수준이다.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귀가 멍해지면서 수조간 이명이 들렸다 사라진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늦지 않게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력은 한번 손실되면 이전 상태로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

다. 특히 젊은 때 청력이 약해지면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도 더 빨리, 심하게 나타난다.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들리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방치할수록 사회적 고립이 심화해 정신 건강이 나빠지는 데다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등 또 다른 질환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다행히 난청은 치료 시 개선 효과가 좋은 편이다. 치료 시기가 빨라질수록 효과는 더욱 커진다. 자동차의 엔진 성능이 좋을 때 잘 관리하면 차를 더 오래 탈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크게 약물치료나 수술

적 치료, 보청기 사용, 인공와우 이식술 등이 이뤄진다. 이 교수는 “난청 중에서도 노인성, 돌발성, 소음성 등 감각 신경성 난청은 적절한 보청기 착용을 통해 청력을 개선할 수 있다”며 “난청은 초기 치료의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만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보청기를 착용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의사소통 어렵고 심하면 인지기능 저하 청력은 조금만 신경 쓰면 어렵지 않게 보호할 수 있다. 평소 생활소음에 주의하며 귀의 피로도를 낮추는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이롭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휴대용 음향기기를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하루 60분 이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어폰·헤드폰을 장시간 사용해야 한다면 1시간 사용 후 5분 이상 휴식한다. 또한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저질환을 엄격히 관리한다. 당뇨병·고혈압·신부전·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돌발성 난청 위험이 커진다.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특히 스트레스는 전반적인 신체 건강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범이다.

스트레스 관리에 힘쓰면서 귀 신경을 자극하는 술·담배·커피를 가급적 피한다. 최 교수는 “규칙적인 운동은 물론 금연·금주를 통해 치료 결과를 끌어올리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게 현실적인 예방법이다”고 말했다. 주기적인 청력 검사로 귀 상태를 점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듣는 데 불편함이 느껴지면 청력이 더 손상되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정밀한 순음·어음 청력 검사 등을 받고 주파수별 정확한 청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영경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혈관이 부르는 첫번째 이름

- 전통솔잎으로 연구 개발된 세종송보감
- 고농축캡슐 타입으로 개발된 GMP 기준 솔잎농축캡슐
- 임상으로 인정되고 식약처(KFDA)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세종 송보감

- 혈액순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분
-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계 건강이 필요한 분
- 혈액순환, 혈관청소가 필요한 분

문의 (703) 256-7671 | www.sejongbiotech.us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한방 칼럼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중 어떤 맛의 음식이 필요할까?

신맛은 간, 단맛은 위장, 매운맛은 폐, 짠맛은 콩팥 기능을 높여준다. 평소 속살을 잘 못하던 사람, 심장의 불이 잘 붙지 않는 사람은 심장이 약한 사람이다. 이때는 쓴맛의 음식이 약이 된다. 열기를 가해서 태운 뒤에 얻어지는 맛이 바로 쓴맛이다.

밥을 태워 만든 누룽지로 송농을 끓여 먹으면 맛은 씹살하고 불내(탄맛의 냄새)가 난다. 열이 나면서 소화도 잘되고 속이 편안해진다. 화(火) 기운은 표현하고 발산하는 심장의 힘이다. 옛날에는 오래된 화병(火病)에 가마솥 검댕을 끓여 약으로 쓰기도 했다. 표현하지

못하여 생긴 화병, 새까맣게 타 버렸을 속을 까맣게 탄 재로 달래는 것이다.

쓴 술을 마시고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용감해지기도 한다. 쓴맛이 심장을 자극해 불을 지피는 것이다. 쓴맛이 지나치면 너무 녹아 버리고 풀린다. 술을 먹고 온몸이 풀리는 것과 같다. 이런 작용을 술이 아닌 쓴맛의 음식을 먹으면 된다. 붉은 수수, 익모초, 쑥, 커피처럼 쓴 것들을 먹으면 심장에 불을 지피서 용기가 생기게 한다.

30대 여성의 예를 든다. 불이 발강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부정맥이 있으며 손발이 차고 손에 땀이 많이 난다.

입맛이 나를 살린다 (3)



권진열
해인한의원 원장

눈도 충혈되고 새끼 손가락이 짧다. 이것은 심장이 약한 경우다.

심장이 약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소심해진다. 심장도 쪼그라들고 마음도 쪼그라든다. 괜히 부끄럽고 수줍어한다. 가슴이 잘 뛰고 숨이 차고 땀 조절도 잘 안 되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본인도 모르게 씹살한 자몽, 고들빼기, 진한 커피, 초콜릿을 좋아하지만, 살쩍까봐 혹은 카페인 부작용이 염려되어 자제해 왔다. 사실은 이런 쓴맛이 나를 치료하려고 내 입맛이 당기는 것이다.

심장이 강해지는 곡식은 붉은 수수이다. 이것을 물에 불렸다가 갈아서 요거트에 타서 꾸준히 마시게 했다. 충혈되었던 눈도 좋아졌고, 2개월 정도 지

나서부터는 얼굴로 열이 올라와 붉어지는 것도 좋아졌다. 심장이 안좋은 경우 어깨와 날갯죽지가 다른 곳보다 아팠지만, 집술을 병행하며 팔과 어깨를 돌리는 운동을 하게 했다. 밤에도 붉은 수수를 넣어 꾸준히 먹다 보니 심장이 튼튼해져 커피도 술도 초콜릿도 덜 당기고, 더 건강해지고 마음에 용기와 자신감이 더욱 증가되었다. 반년도 안되어 기다리던 임신도 하게 되었고 건강한 아들도 순산했다.

또한 적당한 운동과 간을 위한 침술도 받았다. 그 결과 간 조직이 좋아졌다는 진단을 받았고 성격도 부드러워져 집안이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 문의 : 301-922-9239

시니어

첫 날 목적 없이 걷다가 현지인과 대화도 재미

새로운 여행지 찾기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면, 아무래도 여행을 많이 꿈게 된다. 특히 한 곳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여행이 잦지 않았던 경우에도 가보지 않은 곳이 많다. 버킷 리스트를 여행지로 가득 채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유명한 곳만 찾다 보면 오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그저 그렇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신만의 새로운 여행지를 찾는 방법을 제시한다. 몇 가지 방법을 알아봤다.

로컬 여행 블로그 정보 찾아 지도 오프라인 다운로드해

새로운 여행지를 찾는 것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광 상품의 경우, 자세히 살펴보면, 대개가 경치가 좋아서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 좋은 곳이 대부분이다. 얼굴만 바꾸면 모두 같은 사진이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린다.

그렇게 경치를 좋아하는 사람, 역사적인 건물을 좋아하는 사람, 박물관을 좋아하는 사람, 향토 역사관을 좋아하는 사람 등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과 취향이 다르게 마련이다.

백리 거주 50대 정윤식(가명)씨는 최근 조기 은퇴했다. 평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신기해하고 좋아했던 그는 한동안 여행에 전념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몇 번의 관광사를 통한 여행 경험을 살려 다양한 여행지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행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법, 새로운 언어로 소통하는 법, 식사할 장소를 찾는 법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1.문화적 차이=여행지는 어디든 독특하다. 명소, 건축물, 특산물 요리만이 아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에

따르라는 말처럼 문화적으로 특이한 것이 많다. 미국 내에서도 다른 것이 제법 많다. 로컬 법률이 무엇인지, 여행 권고, 건강 관련 예방 조치가 있는지,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불안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서비스 종사자는 팁을 기대하는 반면, 다른 직종의 사람은 기대하지 않으며 일본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팁을 모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은 가이드북을 읽고, 여행사에 물어보고, 여행지의 소셜 미디어를 팔로우하거나 찾아봐야 한다.

2.로컬 여행 블로그 참고=세부적인 여행 정보는 잡지나, 가이드북에 있지만 새로운 레스토랑, 잘 알려지지 않은 이벤트, 축제를 찾기 위해서 현지인이나 외국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추가로 찾아보는 것이 좋다. 유튜브를 포함한 SNS 사이트는 검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Everyday Parisian in Paris, Secret NYC, A Lady in London 등이 꼽힌다. 이름만 봐도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은가.

3.대중 교통을 이용=마드리드, 베이징, 런던 등 대도시에는 대중 교통 자체가 문화적 수업과 같다. 지하철이나 버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도시의 스타일, 문화적 차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게다가 대중교통을 타면 현지인처럼 여행지를 즐길 수 있다.

여행 전 내비게이션 조사를 위해 대중교통 앱을 다운로드해서 얼마나 자주 운행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환승이나 환승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다른 승객을 지켜보는 것도 현명한 것이다. 어떻게 요금을 내고, 티켓을 검토하고, 역을 이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4.일상의 경험을 즐겨야=여행 중에 여유 시간이 있거나 현지인으로서의 삶을 실제로 느껴보고 싶다면 실제로 현지인의 일상을 즐겨볼 만 하다. 머리를 깎거나 매니큐어나 페디큐어를 받거나, 사무실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공동작업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거나, 극장에 가는 것도 좋다.

5.특별한 관심 그룹 찾기=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것도 좋다. 지역 스포츠 및 음악 이벤트와 음식 축제에 참석하는 것이 방법이다. 공통 관심사를 가진 로컬 주민이나 여행자를 만나는 재미있는 방법이다. 거리 예술과 그래피티 투어도 있고 먹는 것을 좋아하면 푸드 투어도 있다.

6.번역 앱 사용=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언어를 탐험하는 또 다른 방법은 번역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구글 렌즈, Scan & Translate를 사용하면 된다. 거리의 안내문을 간단히 구글 렌즈로 번역할 수 있다. 요즘은 AI 번역도 유용하다.

7.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 탐험=여행지에 도착해 여유 시간을 두어 번거로운 시간 제약 없이 산책하고 골목길을 돌아다니는 것도 요령이다. 목적 없이 걷고 흥미로운 상점, 시장, 공원을 살펴



자신의 취미와 기호에 따른 여행지를 새로 찾아보는 것도 시니어의 일상이 될 수 있다. [DALL E3생성]

보고 로컬 주민을 만나는 것이다. 첫 날은 계획이나 일정 없이 여유 시간을 갖는 것이 새로운 시간대, 언어, 음식, 관습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8.지도 다운로드=새로운 도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에서 구글맵스 지도 앱을 다운로드하라. 특히 골목길을 헤매는 동안은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도 탐색할 수 있다. 혹은 종이 지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호텔이나 방문자 센터에서 얻을 수 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를 대비해 백업이나 충전기와 코드를 챙기는 것이 좋다.

9.개인 투어 예약=관심 있는 지역을 탐험하고, 문화를 배우고, 현장에서 인맥을 쌓으려면 개인 투어를 예약하라. 여행 초기에 예약하는 것이 더 좋다. 가이드 워킹 투어를 이용하면 문화적 차이와 이벤트에 대해 물어보기에 좋다. 가이드북에서 읽어보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다.

10.일반적인 문구를 배워야=언어를 아는 것이 새로운 지역을 탐험할 때 큰 도움이 된다.두오링고 같은 앱에서 몇 가지 기본 구문을 배우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인사라도 현지 언어로 말하

려고 노력하라.

11.가장 맛있는 음식점=요즘은 특별히 시도하고 싶은 레스토랑을 찾으려면 앱에서 찾으면 된다.다른 방법은 로컬 주민처럼 먹는 것이다. 식당 밖에 줄 서 있는 로컬 주민을 따라가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12.현지머머러라=대형 호텔을 예약하는 대신, 베드 앤드 브레퍼스트나 호스트와 함께 휴가용 임대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라. 이런 유형의 숙박 시설의 주인과 직원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덜 알려진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을 소개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어떤 곳이 관광객 함정인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지 가까이 추천해준다. 개인 휴가용 임대 숙소를 이용한다면, 리뷰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값싼 곳을 선택하지 말고 리뷰가 없다면 다른 곳에 가라.

13.방문자 센터에 들러보라
14.의심스러울 때는 주저 말고 도움 요청하라

15.적어도 한 번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장병희 기자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5-8일 서울시오페라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 오페라 '토스카' 중 한 장면. 루마니아의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우(왼쪽)와 한국의 베이스바리톤 사무엘윤이 각각 토스카와 스카르피아로 출연한 1막의 무대다.

[사진 세종문화회관]

세월 거스를 순 없지만... 게오르기우 디바 본색은 여전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의 오페라 공연 중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다. '토스카'에 출연한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우가 공연 중간에 무대로 나와 "이건 독창회가 아니다"라며 "나를 존중하라"고 소리쳤다. 3막에서 테너 김재형이 '별은 빛났건만'을 앙코르로 한 번 더 불렀기 때문이다.

이 소동에 가려졌지만 게오르기우의 서울 공연은 본래 큰 의미가 있었다. '토스카'는 자코모 푸치니 100주기를 기념한 서울시오페라단의 선택이었다. 게오르기우는 마리아 칼라스 이후 가장 강력한 무대 위의 존재감 측면에서 최고의 토스카로 불렸던 전설의 디바다. 그를 유럽·미국이 아닌 서울 한복판에서 보는 셈이었다.

문제는 게오르기우의 전성기는 분명히 지났다는 것! 이제 만 59세에 도달한 소프라노가 모든 오페라의 히로인 중에서 가장 강인한 캐릭터에 속하는 이 역할을 무난히 불러낼 수 있을까?

2012년 이후 그녀의 새로운 오페라 전곡 녹음이나 실황 영상은 더는 발매되지 않고 있다. 최전성기의 가수들과 경쟁할만한 좋은 시절은 지났다는 의미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정황도 있다.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세계적인

'비매너 논란' 부른 오페라 공연
환갑 앞두고 서울서 토스카 오페라 1막, 전성기 때와 달리 음정 어긋나 2막부터 공격적인 발성, 최선 다해



201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토스카'에 출연했던 안젤라 게오르기우. 어둡고 부드러운 음성의 게오르기우는 마리아 칼라스를 잇는 강렬한 토스카로 꼽혔다. [사진 게오르기우 홈페이지]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여전히 오르고 있고, 올 초에도 그녀가 국제적 커리어를 시작했던 런던 코벤트가든의 로열 오페라에서 '라보엠'을 불렀다.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오페라 팬들의 게오르기우에 대한 감정은 영화 팬들이 나이 든 톰 크루즈의 액션 신작을 지금도 기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젊은 날처럼은 아니겠지만 과거 추억의 히어로가 지금도 여전히 활기차게 보여서 안도하는 것 말이다. 그리고 보니 필자는 톰 크루즈보다 옛 홍콩 스타 청룡(成龍·성룡)에 대해 그런 감정이었다.

게오르기우의 공연 2회 중 마지막이었던 8일, 막이 열리고 연인의 이름을 부르는 '마리오, 마리오'와 함께 긴 사랑의 이중창이 시작됐다. 아, 하지만 분명 예전과는 달랐다. 음반과 영상으로 수없이 들었던 어두운 음색으로 짙 짙 뻗어나가는 소리가 아니었다. 2002년 월드컵 기념 내한공연으로 직접 관람할 수 있었던 게오르기우-알라냐 듀오 콘서트, 2012년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라보엠'을 불렀던 전성기의 당당함이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성량이 작아졌고, 가끔 주저하는 느낌도 있었으며, 특히 고음

이나 큰 외침에서는 소리가 갈라질까 봐 조심하는 면모가 두드러졌다. 중저음의 매력도 무뎠고, 보컬의 유동적인 움직임은 전성기보다 모자랐다. 정확하기 이를 데 없었던 예전과 달리 음정이 미세하게 벗어나기도 했다.

2막부터 모든 면이 나아졌다. 게오르기우가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이 느껴졌고, 다소 잠겼던 목소리도 제법 트였다. 덕분에 1막보다 공격적인 발성을 해냈고, 특히 악당 스카르피아의 탐욕을 견뎌내는 연기는 칼라스의 재래를 보는 듯 명품이 아닐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게오르기우는 환갑을 넘겨서도 변치 않은 노래를 들려준 마리엘라 데비아, 혹은 에디타 그루베로바 만큼 여전하지는 않았으나 아직 디바로 불려도 좋을 열정이 있었다. 다만 톰 크루즈나 청룡처럼 특수효과나 편집으로 그럴싸한 조각이 가능한 영화가 아닌 눈앞의 실황이어서 나이 든 민낯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연인 카바라도시 역의 김재형은 맑은 음색과 풍부한 성량, 자신감 넘치는 표현력으로 관객의 찬탄을 자아냈다. 그런데 너무 잘 부른 사세가(辭世歌) '별은 빛났건만'의 앙코르에 응한 것이 화근이었다. 스카르피아 역의 사무엘

윤은 악당으로는 지나치게 깨끗한 소리였지만 충분히 열연을 펼쳤다.

표현진의 연출은 시대나 장소 배경을 원래대로 둔 전통적인 것이었으나 포격으로 일부 파손된 성당, 산탄젤로성의 쓰러진 천사 날개 등 인류 역사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의 참화를 표현했다. 조금 생뚱맞은 부분도 있었지만 대역을 사용한 토스카의 투신 장면은 지금까지 실연으로 본 '토스카' 중 가장 압권이었다. 지중배가 지휘한 부천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흡입을 데 없이 좋은 소릿결을 들려주었지만 공연장 음향 탓인지 필요한 경우의 폭발력이 다소 아쉬웠다.

비록 게오르기우가 일으킨 사건으로 마무리가 찜찜해졌어도 이런 스타 가수를 섭외한 서울시오페라단의 시도는 찬사를 받아야 한다. 아무리 전성기가 지났어도 결코 퇴물가수를 부른 것은 아니었다. 서울시오페라단은 국립오페라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연작에서 연속적으로 대단한 출연진을 구성하면서 국립오페라단의 대항마다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이런 경쟁 구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형중 음악·무용 칼럼니스트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시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무보험자를 위한
뮤이저 Plan, Care Credit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Periodontal Surgery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Veneer Lumineers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테니스 세대교체’ 스물셋 신네르, US오픈 첫 우승

도핑 양성 논란에도 올 메이저 2승 22년만에 빅4 중 한명도 우승 못해

안니크 신네르(23·세계랭킹 1위·이탈리아)가 생애 처음으로 US오픈 테니스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신네르는 9일(한국시간)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남자 단식 결승에서 테일러 프리츠(12위·미국)를 3-0(6-3, 6-4, 7-5)으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360만 달러(약 48억원). 지난 1월 호주오픈에서 생애 첫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신네르는 이번 대회까지 석권하며 메이저 2승을 기록하게 됐다. 신네르가 두 차례 도핑 양성 반응을

보인 사실이 지난 3월 뒤늦게 알려졌다. 1월 호주오픈 우승도 ‘약물의 힘을 빌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가 “고의로 약물을 쓴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한 뒤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자 ‘세계랭킹 1위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신네르는 이날 실력으로 논란을 잠재웠다. 신네르는 “최근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우승은 의미가 크다. 나는 테니스를 사랑한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신네르는 우승을 확정된 후 여자 친구인 테니스 선수인나 칼린스카야(15위·러시아)와 포옹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이로써 올해 4대 메이저 대회는 남자 단식 우승은 2000년대 생인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21·3위·스페인)가 나눠 가졌다.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Wimbledon에서 우승했다. 남자 테니스 ‘빅4’로 불리는 로저 페더러(43·스위스), 라파엘 나달(38·스페인), 노박 조코비치(37·세르비아), 앤디 머리(37·영국) 중 한 명도 메이저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남자 테니스 ‘빅4’ 중 페더러는 이미 은퇴했다. 나달과 머리는 올해를 끝으로 현역 생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파리올림픽에서 우승한 조코비치만 여전히 세계 2위를 지키고 있다.



생애 첫 US오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안니크 신네르. 남자 테니스 ‘빅4’를 밀어내고 올해 메이저 2승을 달성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당분간 조코비치는 신네르, 알카라스와 3강 체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 해설자 애너벨 크로프트는 “남자 테니스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알카라스와 신네르가 있다. 둘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명승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알카라스가 신네르에 5승 4패로 앞서 있다.

한편 이날 결승전엔 팝 가수 테일러 스윙프트와 그의 남자 친구인 미국프로풋볼(NFL) 스타 트레비스 켈시(캔자스시티)를 비롯,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래퍼 어셔 등 유명 인사들이 관중석을 찾아 경기를 지켜봤다.

피주영 기자

사발렌카, US오픈 테니스 여자 단식 우승

아리나 사발렌카(2위·벨라루스)가 US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7500만 달러) 여자 단식을 제패했다. 사발렌카는 7일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13일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제시카 페굴라(6위·미국)를 2-0(7-5, 7-5)으로 물리쳤다.

올해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사발렌카는 개인 통산 세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는 준우승했던 사발렌카는 우승 상금 360만 달러를 받았다. 사발렌카는 이번 우승으로 2016년 안젤리크 케르버(독일) 이후 8년 만에 하드 코트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과 US오픈 여자 단식을 한 해에 석권한 선수가 됐다.

특히 사발렌카는 2023년과 올해 하드코트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US오픈에서 27승 1패를 기록하는 절대 강세를 보였다. 유일한 1패는 지난해 US오픈 결승에서 코코 고프(3위·미국)에게 당한 것이다.

2022년 이가 시비옹테크(1위·폴란드) 이후 2년 만에 한 해에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2회 이상 우승하는 기록도 남겼다. 2023년 호주오픈에서도 우승한 사발렌카는 현역 선수 가운데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 4위(3회)가 됐다.

현역 최다승은 7번 우승한 비너스 윌리엄스(833위·미국)고 그 뒤를 5회의 시비옹테크, 4회의 오사카 나옴이(88위·일본)가 있다.

사발렌카는 페굴라와 상대 전적에서 6승 2패로 격차를 벌렸다. 8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신시내티오픈 결승에 이어 최근 2연승을 거뒀다. 사발렌카는 1세트 게임 스코어 5-2로 앞서다가 5-5로 따라 잡혔고, 이어진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허용했다. 네 번의 듀스 접전 끝에 서브 게임을 지켜 한숨을 돌린 사발렌카는 곧바로 다음 페굴라의 서브 게임을 똑같이 네 번의 듀스 끝에 브레이크하며 1세트를 선취했다. 2세트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1세트를 따낸 여세를 이어간 사발렌카가 게임 스코어 3-0으로 먼저 달아났으나 곧바로 페굴라가 3-3으로 추격했고, 이번에는 5-3으로 전세를 뒤집기까지 했다. 그러나 사발렌카가 연달아 페굴라의 서브 게임을 두 차례 브레이크해 2세트도 7-5로 가져갔다. 사발렌카는 페굴라의 마지막 샷이 라인 밖으로 나가자 그대로 코트에 드러누워 우승 기쁨을 만끽했다.

워낙 공격적인 성향의 사발렌카는 이날 공격 성공 횟수에서 40-17로 페굴라를 압도했다.

페굴라는 경기 후 코트 위 인터뷰에서 “시즌 초반 성적이 안 좋았다가 8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며 환상적인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사발렌카를 상대로 한 세트라도 따내려고 했지만 워낙 파워가 좋은 선수라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용은, 백전노장 랑거 꺾고 시니어 무대 첫 우승

PGA 챔피언스 투어 첫 경기 제패 46승 최다승 랑거와 연장 끝 승리

양용은(52)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니어 무대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시니어 골프의 전설로 불리는 베른하르트 랑거(67·독일)를 연장전에서 물리쳤다.

양용은은 9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노우드 힐스 골프장에서 열린 PGA투어 챔피언스 어센션 클래식 클래식 최종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1개로 5타를 줄여 랑거와 함께 함께 13언더파 200타로 공동 선두에 올랐다. 양용은은 이어 18번 홀(파4·466야드)에서 벌어진 연장전에서 버디를 잡아내 파를 기록한 랑거를 물리치고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31만5000달러(약 4억2000만원).

PGA투어 챔피언스는 만 50세 이상의 선수가 출전하는 시니어 골퍼의 격전장이다. 최고령 우승(65세 10개월 5일) 및 최다 우승(46승) 기록을 가진 랑거를 비롯해 비제이 심(61·피지)과 어니 엘스(55·남아공), 존 달리(58·미국), 최경주(54) 등 PGA 투어를 주름잡았던 전설들이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챔피언스 투어는 1월 개막해 12월 폐막하는데 대회는 보통 3라운드 54홀 규모로 열린다.

양용은은 만 50세가 된 2022년부터 챔피언스 투어에서 뛰고 있다. 그동안



PGA 투어 시니어 무대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양용은. 최종 라운드에서 5타를 줄인 뒤 ‘시니어 골퍼의 전설’ 베른하르트 랑거와 연장전을 벌인 끝에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71개 대회에 출전해 준우승 2회와 3위 3차례 등을 기록했지만, 이제까지 우승 경력은 없었다.

72번째 대회인 어센션 클래식 클래식에서도 정상에 오르기까지 길은 험난하기만 했다. 스투어트 싱크(51·미국)와 8언더파 공동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 양용은은 1번 홀(파4)과 2번 홀(파5)에서 잇달아 버디를 잡아 기세를 올렸다. 파3 7번 홀에서 보기로 1타를 잃었지만, 바로 다음 8번 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내며 상위권을 유지했다. 양용은은 후반에도 버디 2개를 추가해 함께 13언더파 단독선두로 경기를 마쳤다. 그러나 랑거가 7타를 줄이면서 양용은과 동타를 이뤘다.

결국 두 선수는 우열을 가리기 위해 연장전을 치러야 했다. 연장 첫 홀 경기

에서 랑거의 3m짜리 버디 퍼트가 홀을 외면한 반면, 양용은은 2m 거리에서 버디를 잡아내 승부를 마무리했다.

한국 선수가 챔피언스 투어에서 우승한 것은 2021년 9월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과 지난 7월 더 시니어 오픈을 제패한 최경주 이후 양용은이 처음이다. 특히 양용은은 2009년 PGA 챔피언십에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9·미국)를 물리치고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는데 시니어 무대에서도 백전노장 랑거를 꺾는 기염을 토했다.

양용은은 “챔피언스 투어에서 3년째 뛰고 있는데 오늘이 가장 기분 좋은 날이다. 전설적인 골퍼 랑거와 경기하면서 긴장했지만, 연장전에서 내 플레이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고훈준 기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채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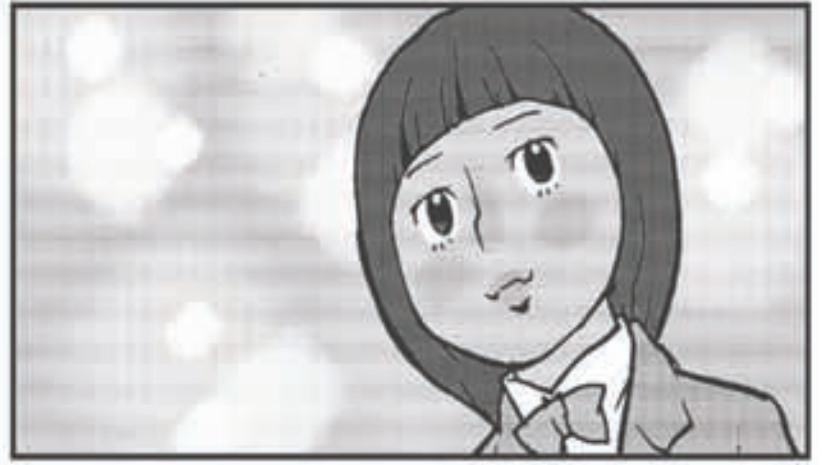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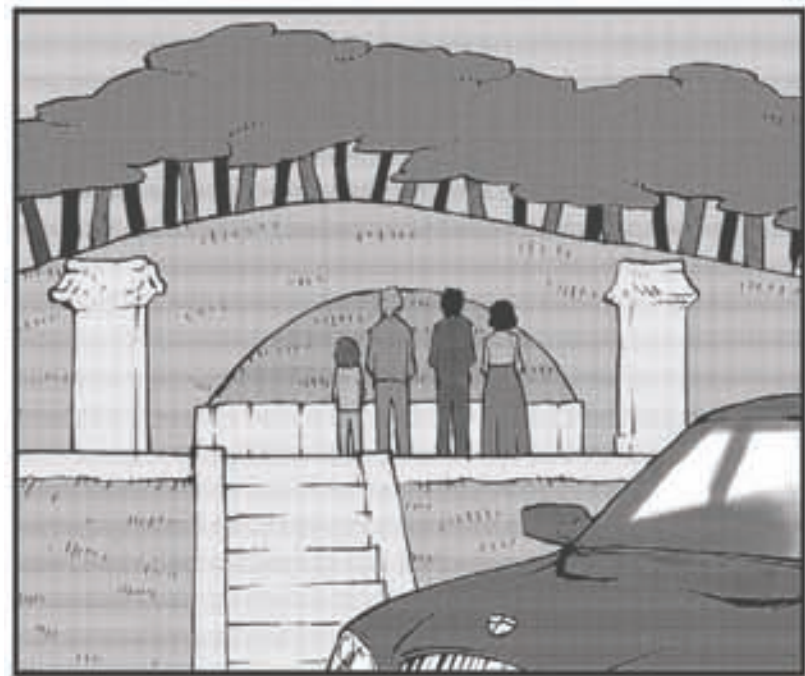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조상**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양영순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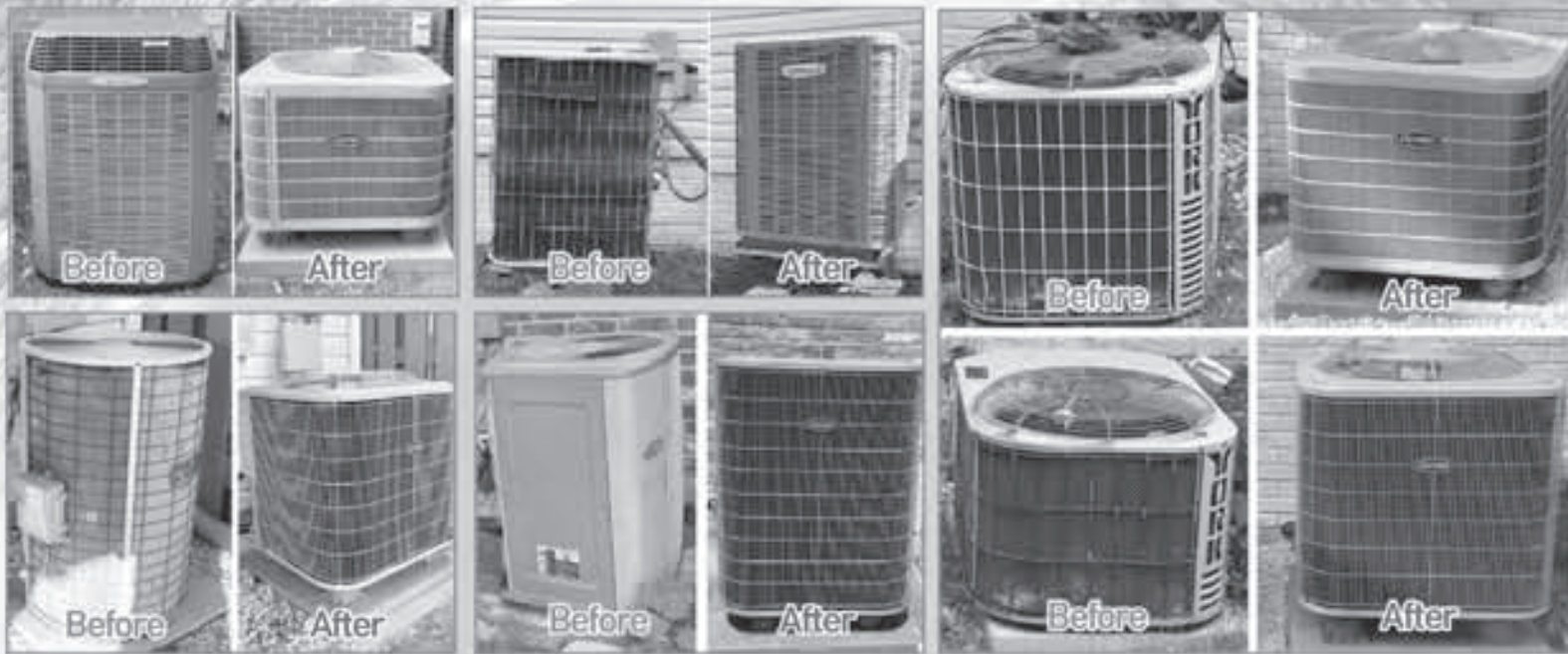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9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장+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혜택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계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독자가 행복 해진다!!

메릴랜드 지역

직원 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 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 (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 (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 332-2101(문자요망)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몰라자 마켓 분사 승원유동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고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병원/한방/덴탈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트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속식도 가능. 410-961-3012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폴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트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트시티 장수 설령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캐슈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사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트시티, MD)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트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목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트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룬델빌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방렌트

▶▶엘리트시티 타운홈렌트 전체 \$1,800 메릴랜드 10th Street 방3/화2, 1/2, 넓은 지하실, 롯데 /한아름 5분 거리 410-676-9225

엘리트시티 2015 타운하우스(3층), 학군, 교통, 상권 최고 입지. 방4 냉장고/세탁기 New모델, 240-457-267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 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트 도서관 안 아름 메트로근처 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싱글홈,큰방, 욕실,유포,인터넷,가구,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욕실, 거실등,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엡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

▶▶LORTON 헤어제출 수입 홀세일 창고에서 오전: 고객 오더접수 오후: 노던 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hint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 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 우대 합니다.

Resume : skim@skimcpa.com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애난델.시원한 사무실서 파.풀타임 근무하실 분. Junpark9@hotmail.com 571-242-3736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o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트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몰라자 마켓 분사인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 분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무실 경력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첸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 /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중앙일보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에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매니저
구함-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정부계약및
vendor 관리-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포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
디자'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급,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료/풀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 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품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셔,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셔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원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식당/델리/제과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몰에서
5분거리 베이글 샵에서 함께하실 파/풀
타임(주말포함) 문자요망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스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543-2320

▶▶텍사스드넛센터빌베이크보조구함(아간)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네일/마사지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에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풀/파트타임 이발사구함.
703-408-1119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강, 프레스,
빨래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컴퓨터, 얼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포드 광통밴 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너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너,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에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
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7 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알아서 해주실분
(703) 473 602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여노스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틀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에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싱글홈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사위, 와슈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에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레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깝음. 교통편리.
703-477-3114.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하여 매매 가격 산정
2. 정확한 매매 상황과 매매 조건 유동성
3.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 고용

20년 경력으로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아난데일 H M ART 옆 콘도렌트 \$2,300
방3개 화장실 2, 유포.
전기만 별도 9월말 입주 가능
703-350-1986

▶아난데일 홈디포 옆 싱글홈 마스터룸 1차
장다니는 여자분/유포/\$700
703-350-1986

▶▶아난데일 홈디포 옆 싱글홈 워
크아웃 반지하방 1/화1 /세탁기/부
역/유포 \$1,5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역,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교통 편리한 아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
타운홈 안방 + Full Bath 금연구
단기 렌트 가능
929-424-2221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출입문 별도
출퇴근 하시는 직장인 한분.
화장실, 샤워, 인터넷. 문자요망
703-282-2862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बाट조용한 뒷층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문자보내주세요.
571-345-8879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1. 아난데일 한강식당옆 개인집방 렌트
화장실/입구별도 9/1일 입주가능
2. 타이슨지역 개인집 지하방
703-395-4380

▶▶첼러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욕아웃
인터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역/화장실/출입문 별
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단독주택 지하방1, 욕실, 세탁기, 거실, 인터
넷, rt 50, Parkway 286, H mart 10분 거리,
롯데, Fair Oaks mall, Inova 병원옆
571-236-0834

Fairfax VA 비엔나전철역 근처 66도로
495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욕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킴, 워셔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 근처 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아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개인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 주차 자리도 있습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 2부역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램블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쇼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워층방 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 애지 부동산 파고 사 고자 하시는 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캐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 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촌시 부동산
1.seafood carry out
2.pickup store(bowie) \$30,000.
3.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4 화3, 1/2
▶703-768-1240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펴룸,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DC. 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 근무/전체 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공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썬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신선한 야채 배추, 무, 갓, 알타리무를 농장 가
격으로 공급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공급합니
다. 교회, 식당 환영
240-796-0093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공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 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의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방설역 옆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 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타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팅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버, 트렉리,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
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쥘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클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방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
지니스 페인,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하트앵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앨런)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올타리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생활안내 유료

703-281-9660(문자)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com
HomeAdvisor
Best Home Improvement Contractor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케비넷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 ↔ 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전 후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a drama queen; 엄살부리는 여자

(Lisa comes home from school and is greeted by her mother Jean ...)

(학교에서 돌아오는 리사를 엄마 진이 맞이한다...)

Jean: How was school today?
진: 오늘 학교 어땠어?
Lisa: Terrible! I hate school!
리사: 안 좋았어! 학교 싫어!
Jean: Something really bad must have happened.
진: 뭔가 아주 안좋은 일이 있었구나.
Lisa: Yes and I'm not going back!
리사: 응. 학교 안갈 거야!
Jean: What happened?
진: 무슨 일이 있었는데?

Lisa: Mr. Lee made me stay after school for talking in class.
리사: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고 이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남으셨어.
Jean: I think you're being a drama queen today.
진: 오늘은 진이 엄살을 부리네.
Lisa: You always stick up for the teacher.
리사: 엄마는 항상 선생님 편이야.
Jean: Are you telling me you didn't have it coming.
진: 네가 혼날 일을 안했다는 거니?

Lisa: No but I didn't know he have eyes in the back of his head.
리사: 그건 아니지만 선생님은 머리 뒤에도 눈이 있는지 몰랐지.
기억할만한 표현
▶ stick up for (someone): (누군가의) 편을 들다.
"I didn't believe her but I stuck up for her." (그 여자를 믿지 않았지만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 have it coming: 벌받을 일을 하다.

"You haven't done anything I told you to do, You have it coming." (당신은 내가 하라는 걸 하나도 안했어. 화를 자초했어.)
▶ have eyes in the back of (one's) head: 머리 뒤에도 눈이 달리다. 안보이는 것까지 보다.
"Don't try anything because I have eyes in the back of my head." (난 머리 뒤에도 눈이 있으니까 딴 일 하지 마세요.)

날말퀴즈

| | | | | | | | | |
|----|----|----|----|----|----|----|----|----|
| 1 | | 2 | | | | 3 | | 4 |
| | | 5 | 6 | | 7 | | | |
| 8 | 9 | | 10 | 11 | | | | 12 |
| 13 | | 14 | | | | 15 | | |
| | | 16 | | | 17 | | | |
| 18 | 19 | | | 20 | | 21 | 22 | 23 |
| 24 | | | 25 | | 26 | | | 27 |
| | | 28 | | | 29 | 30 | | |
| 31 | | | | | | 32 | | |

가로열쇠

(1)도로상에서 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 주는 표지 (3)사막과 같이 덥고 메마른 곳에 자라는 식물. 대부분 가시가 있죠. (5)하얗게 센 머리털. 한 손에 학대 잡고 또 한손에 가지 쥐고/놓는 길 가 시로 보고 오는 ~ 학대로 치렀더니/~이 제 먼저 알고 자름길로 오더라(우탁) (7)간장-고추장따위를 담아서 상에 놓는 작은 그릇 (8)강연이나 설교, 음악 등을 듣는 무리 (10)술 만하거나 값이치가 있는 것을 골라낸 나머지 (12)낱겨나 흰 물건을 고침 (13)봄철과 가을철에 입는 옷 (15)당근. 수줍거나 무안하여 붉어진 얼굴 (16)악마의 손. 음흉한 손길이나 수단 (17)살갓에 좁쌀 같은것이 돋는 것. 소름. 남들 앞에서 다정함을 드러내는 연인이나 부부를 ~커플이라고 하죠 (18)꿀꾸기가 망신시키는 가게 (21)도둑맞지 않으려면 이것을 잘해야 하죠 (24)장례에서 쓰는 죽은 사람의 사진 (25)기둥과 들보로 쓸 만한 재목. 한 나라나 집안을 이끌어 갈 젊은이 (27)초대를 받고 온 사람 (28)술법을 써서 자기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바꿈(29)무덤의 풀을 베어서 깨끗이 함 (31)젓나가 빠진 뒤에 나는 이 (32)밥이 먹기 싫다거나 밥을 더 달라고 짜증을 부림!

세로열쇠

(1)16세 무렵의 혈기 왕성한 젊은 시절 (2)화학 약품으로 탈색하여 희게 함 (3)집승을 잡아서 받은 피 (4)소매가 길면 춤을 잘 출수 있음. 재물이 넉넉한 사람은 일을 하거나 성공하기가 쉬움. □수□□ (6)발목에 끼는 고리 모양의 장식품 (7)피부가 굵아 고름이 차는 질환 (9)가을이 한창인 때. 음력 8월 (11)겉질이나 겉데기의 막, 눈□□ (12)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 (14)마귀가 숨어 있는 집이나 굴. 비밀리에 나쁜 일을 꾸미는 무리들이 활동하는 곳 (15)궁전·관아·능·묘·원 등의 앞에 세우던 붉은색을 칠한 나무문. 일주문과 다른 점은 지붕이 없다는 것이다 (18)어물어물 세월을 보내는 모양. □□부□□ (19)세상의 이리저리한 실정이나 형편 (20)근대의 양식 (22)몸의 열이 높을 때 입이나 코 안에서 나는 냄새 (23)아무 실속이 없이 걸만 그럴듯한 것 (25)같은 나이 (26)총수나 그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28)물가의 언덕 (30)초와 소금을 친 흰밥 위에 생선 쪽파위를 얹어 먹죠

스도쿠

| | | | | | | | | |
|---|---|---|---|---|---|---|---|---|
| 4 | 8 | 2 | | 7 | | | | 9 |
| | | | | | | | 4 | |
| | | | 7 | 5 | 9 | 4 | | 8 |
| | | 4 | | 1 | | 9 | | 5 |
| | 5 | | | 4 | | | | 6 |
| 7 | 1 | 6 | | | | 8 | 9 | 4 |
| | 2 | | | | | | | 9 |
| | 9 | 4 | 8 | | 7 | 5 | 1 | |
| | | 1 | | 2 | 6 | | 3 | 8 |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 | | | | | | | | |
|---|---|---|---|---|---|---|---|---|
| 8 | 3 | 4 | 9 | 2 | 6 | 1 | 7 | 5 |
| 2 | 1 | 5 | 7 | 3 | 8 | 4 | 6 | 9 |
| 7 | 6 | 9 | 5 | 1 | 4 | 8 | 2 | 3 |
| 4 | 2 | 6 | 8 | 5 | 3 | 9 | 1 | 7 |
| 3 | 6 | 1 | 2 | 4 | 7 | 9 | 5 | 8 |
| 5 | 7 | 8 | 6 | 9 | 1 | 3 | 4 | 2 |
| 9 | 8 | 2 | 4 | 6 | 5 | 7 | 3 | 1 |
| 1 | 4 | 7 | 3 | 8 | 2 | 5 | 9 | 6 |
| 6 | 5 | 3 | 1 | 7 | 9 | 2 | 8 | 4 |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양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양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양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양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양일보 구독신청서

| | | |
|---------------------------------|---|--|
| 성명 (Name) | 영문 (Eng) | 한글 (Kor) |
| 주소 (Address) | | |
| 연락처 (Phone #) | Home | Cell |
| 구독료 (Subscription Fee) | 1년 선납 \$150 |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
| Card Info |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 카드 유효 기한 EXP. DATE: / / CVS: / / |
| 신청서 보내실 곳 |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
| 20 년 월 일 서명 (sign): | |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매매

K Hello Town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이메일로 발빠르게
소개해 드립니다.
(무료)

www.HELLOKT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

구인

알짜 세탁소 에이전시

월매 26K, Net 11K 확실
특가 21만, 기후쾌적
안전, 성장지역, 샌렌트, 좋은매물
주인은W.S.Riverside CA지역
(213)249-1893 샘킴

델리버리/주방일하실분

부부팀도환영, 숙소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주방장

숙식제공, 조리아주지역
(646)229-2708

이민생활의 나침반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치과의사 모심

최고의 치과시설을 보유한 병원
(Texas, El Paso)

- 텍사스 면허 소지하신분
- 최고의 연봉으로 대우
- 비자/영주권 스폰서 가능

문의: (551)579-0968 mgff1770@gmail.com

us.srotech.com **건식온돌 난방**
차콜온돌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효유
1-213-210-9720/papaaaa.com

Partial & Denture
플타임
N.캐롤라이나주 샬럿 지역
704.806.3068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핵심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휴제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히노씨]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2024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가을학기 개강 9월 16일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리주 동시어??!!**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The JoongAng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Atlanta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